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제264호 | 2016년 4월

www.snuuaa.org

news@snu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욱 편집인: 김정현



Cherry Blossom in DC

2016년 뉴욕지역 동창회 골든 클럽 신년교례회가 3월 19일, 73명의 회원과 가족, 동문 참석하에 뉴저지 Fort Lee DoubleTree 호텔에서 조촐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거행되었다.

지난 6년간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클럽을 발전시켜 온 이준행(공대 48) 클럽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 회장으로 추대되고 정인식(상대 58) 신입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1998년 창설된 뉴욕지역 골든 클럽은 65세 이상의 100여 동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달 골프대회, 바다낚

뉴욕 동창회

골든 클럽 신년 교례회

시, 산행, 컴퓨터교실 운영 등으로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다.

이준행 회장은 “6년간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같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나이는 어쩔수가 없군요. 앞으로 일심동체 상부상조하는 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이 날 행사엔 손재욱 미주총동창회장이 특별히 참석해 성낙인 모교총장이 참석 예정인 6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미주 평의원회의’ 소개와 10월에 모교에서 있을 ‘개교통합 70주년 홈커밍데이’에 많은 미주 동문들이 참석할 것을 권하였다.

전체 1-2부로 진행된 본 행사는 오후 5시 칵테일을 시작으로 신규 회장 이취임식, 2015년 회계보고, 골프대회 상금 수여, 제2부 경품추첨 순서로 늦은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많은 경품 중 대상인 최수용 회원이 희사한 48” Smart TV 2대는 신응남, 손정자 회원에게 돌아 갔다.



정인식 회장, 이준행 회장 내외



신임원진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 | | |
|---------------------------------------|-------------------------------------|
| 1 DC 벚꽃/뉴욕골든클럽 신년교례회 | 14 광상희 봄서신/한정민 상담칼럼 |
| 2 Germany's Acceptance of Refugee | 15 도전특집: 조중행/벨렉데베렐/박혜란 |
| 3-4 혁신의 도전/위안부 문제의 해결 | 16-17 기획: 인공지능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
| 5 평의원회의 준비 박차 | 18 미술: 원미랑 Fire & Light/최은관 기도하는 태도 |
| 6 모교소식: 입학식/총동창회 장학금/연구경쟁력 | 19 음악: 심화진 사순절에 듣는 음악 |
| 7 하계학교/천원의 식사/서울대 vs 베이징대/물소비 | 21 건강: 전이성 유방암/임남세 |
| 8-9 My Story & Your History/ 담당자의 한마디 | 22 영화: Anomalisa/신간: 이태상 사상이 아니고.. |
| 10-11 지부: 플로리다/남가주/시카고/샌디에고 | 23 여행기: 지재원 우유니 소금사막/새번역: 미국사 |
| 12 지부: 조지아/뉴잉글랜드/미네소타/룩키마운틴스 | 24 이달의 사진/소개팅에도 계급이 |
| 13 영스타운대 다나합창단/KSEA/국악의 진수 | 25 독자의 광장 |

A Mosaic of Responses to Germany’s Acceptance of Refugees



Juliana Hong

Sitting in an advanced English course in a German high school, Jane* blends into the crowd. She is surrounded by white faces and occupies her place amidst the neat rows of off-white desks. She reads the same textbooks, laughs at the same jokes and writes with the same pencils as her classmates. Yet, her past is so starkly different from the peers she sits next to. She is a refugee, who initially escaped to Greece and now lives in Germany with her mother. She has slept in refugee camps and has been forced to live with strangers in crowded spaces. She is one of the 1.1 million refugees who have come to Germany within the past year and are trying to integrate into German society.

Over winter break, funded by the Meinig Family Cornell National Scholars program, I traveled to Germany to gain on-the-ground information about the influx of refugees in Germany and to hear the stories of people like Jane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greatest movement of refugees to Europe since World War II. Currently, the primary issue of concern and goal for Germany is integration of these people. In the next few years, what will Germany look like? How will Germany change? By conversing with people directly facing the effects of the situation, I caught a glimpse of the integration process that has just started to begin during the past year and a half.

A remarkable response through the Willkommen-skultur (Welcoming culture) has been fostered by ordinary German people who are motivated by a moral imperative to help and welcome new refugees. Adrian, a high school student I spoke to, had just spent his winter break on the shores of Greece, distributing socks and warm clothes to refugees arriving on flimsy boats. Maren, a full-time consultant, served as a grassroots organizer during the weekends, using food and community dinners as means to connect Germans and refugees. Henoch, a biotech scientist, expressed his belief that “it should be absolutely natural for Germans to provide any kind of help for the rea-

son that they’re human beings.” As I looked into the eyes of person after person describing their commitment to creating an accepting culture, I couldn’t help but marvel at the inspiring acts of humanity displayed collectively through individual Germans.

And yet, there exists an apparent clash between moral desires and pragmatism. The challenges have also overflowed to various parts of society. Some doctors are forced to work 2 a.m. shifts to accommodate newly arrived refugees. Christiane, a labor researcher, expressed her concern regarding the government’s mistake of letting in people without proper identification. Even “ideal

Initially, some Germans felt that there was a degree of social pressure perpetuated by the media to fully support refugees without focusing attention on the challenges. Gerit, a German graduate student, said, “I think the media in this year will be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how the society in Germany thinks.” For many, German media outlets are immensely influential sources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situation. However, instead of the polarized dichotomy depicted widely in portrayals, the German responses appeared to represent more of a mosaic, comprised of varying levels of concern and optimism and nuanced understandings. People are clearly conflicted on how to proceed. There exist reasonable people with valid, understandable apprehensions. Surprisingly, one Iranian refugee expressed her opinion that Germany’s choice “was the best decision for refugees, but the worst decision for Germany.” Ironically, some right-wing conservatives and immigrants share the same skeptical opinions. Many were very careful in articulating their thoughts, cautious not to offend or appear judgmental. Still, others were genuinely fearful of increases in crime. As one university student said, “In this situation, the simple solutions are the wrong solutions.”

Not even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horrific events of the Holocaust indelibly stained Germany’s history. And yet, present-day Germany has demonstrated a striking shift in attitude. As put by a German woman, “Only someone who has seen the wall through Berlin and the lethal fence of the Iron Curtain with their own eyes, can correctly assess what that means.. This year our country has had the historic opportunity to show that our hearts have really changed, from a country that wanted to wipe out a whole nation of people to a country that can take in a whole nation of people.” Their actions are not clouded by idealism, but they are fueled by clear and thoughtful motivations. The complexities of the situation demand flexibility, adaptation and a willingness to be uncomfortable. As Germany wrestles its moral ideals with its pragmatism, the solutions cannot be reduced to simple answers.

*Names have been changed for privacy reasons. Juliana Hong is a freshman in the Cornell University & 故홍종한(자연과학대 75, 리하이대교수)와 이 성숙(가정대 74) 동문부부의 셋째딸.

As a result, there was perhaps a noticeable shift in media sentiment, towards a more critical lens.



immigrants” — young, university educated, and ready to work — are stuck waiting and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due to the bureaucracy. Furthermore, during my time in Germany, Cologne — the very city in which I was staying and the fourth largest city in Germany — captured international headlines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on New Year’s Eve. There, hundreds of women were attacked, sexually assaulted and stolen from by hundreds of “men of North African or Arab descent.” This incident of crime only bolstered the heightened tensions that permeated the conversations, news headlines, and street protests.



서정화 회장님의 재선임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 미주총동창회 -

모교 총동창회 서정화 회장이 3월 18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임 됐다. 임기는 2년이다.



혁신의 도전

혁신을 통한 스마트 미래의 창조 2



이상문 (상대 57)

오늘날 우리는 제4의 디지털시대 물결에 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시대에서 혁신은 필수적 요인이며, 우리에게는 혁신을 위한 수많은 첨단기술과 하드웨어(Hardware)가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자가학습분석기술(self-learning analytics), 수 천 개의 의학학술논문을 학습

하여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환자진단을 할 수 있는 IBM사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Watson: 암진단과 치료), 2016년 3월 한국의 이세돌 9단과 5번 대국을 펼친 구글사(Google)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Alpha Go), 수십억 개에 달하는 네트워크된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하여 인간보다도 더 빨리 제감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가상지식 시스템을 통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한 데이터 정보를 자가습득할 수 있는 학습기계, 어렵고 위험한 일을 자동화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스마트 로봇, 여러 스마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융합, 분해, 재융합할 수 있는 스마트 융합기술 등,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은 부지기수(incalculable)이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로 우리는 스마트 미래를 방해하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모든 종류와 싸우는



기적의 약, 암세포의 유전자를 분해하여 파괴하는 지놈 편집(genome editing)기술, 다른 장치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로봇, 인간의 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바이오칩, 최첨단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 등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스마트 방법을 이용하여 혁신으로 다음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 **인간의 재능과 직업의 연결:** 각 개인마다 독특한 강점과 재능이 있다. 인력자원의 최고 생산성을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 또는 충성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혁신이 그 조직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GDP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겐립사의 연구에 의하면, 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20배의 생산성을 올린다.

◆ **최적의 일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 전통적인 경영기법은 기존의 작업 또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미래를 위해서는 점진적 향상보다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즉, 혁명적 또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통적인 사고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의 혁신은 새로운 가치나 부를 창조하지만 많은 일자리 또한 파괴한다. 자동차 조립공장은 로봇에 의해 자동화 되었고, 햄버거를 굽던 많은 요리사들은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고기굽기로 실종되었고, 전차교환원이나 우체국 집배원도 대부분 찾아볼 수 없고, 도로공사에서 지게로 흙을 나르던 사람, 모를 심던 많은 농부들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도 대부분 그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혁신으로 보수가 높고 또 수명이 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미래의 행동까지도 알 수 있는 스마트 혁신 필요

◆ **실버인구의 활용:** 중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령화가 추세가 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이고, 일본은 인구의 25%가 60세 이상이다. 스마트 미래 창조는 실버인구를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하게 해 주고 그들의 축적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점점 증가하는 은퇴한 지식근로자들이 디지털시대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스마트 미래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 중의 하나는 환경오염이다. 글로벌 온난화와 환경을 파괴하는 공기, 물의 오염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짙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 점차 증가하는 바다의 지형선(topographical line), 건강을 해치는 더러운 공기와 물은 인류모두에게 재앙이다. 스마트 미래는 녹색 환경을 지속시킬 수 있는 혁신이 절실하다. GE사는 녹색경영이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상충관계(trade-off)라고 생각했던 환경보호와 기업이윤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 **오늘의 상상 한계를 넘어서기:** 스마트 미래는 예측에 안주하지 않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벌써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인공지능, IoT 등으로 스마트한 기기로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며, 자연재해와 경제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제는 곧 사람들의 강점, 기분, 감성, 가치 나아가 미래의 행동까지도 알 수 있는 스마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 **디자인 사고:**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는 다이나믹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많은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좋은가를 고민하는 기법이다. 재무적인 성과를 위주로 했던 기존 기법과 달리 디자인 사고는 삶의 질, 웰빙, 더 좋은 미래 등 전반적인 스마트 사회를 위한 가치창출을 지향한다. 따라서 스마트 미래

를 위해서는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미래는 모든 사람, 조직,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스마트한 국가 건설’을 가장 중요한 국가차원의 과제로 정하였다. 필자는 이 프로젝트 책임 장관에게 스마트 미래에 대하여 세미나를 해 준바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창조경제도 스마트 미래 창조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스마트한 국가 건설을 위하여 명백하게 눈에 띄는 하드웨어적 혁신에만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음의 혁신이 주요과제이다.

- 과학기술의 인프라 개발 지원: R&D 센터, 연구단지, 혁신 캠퍼스 증설
- 수학, 과학, 공학교육
- 컨버전스 혁신을 위한 응용연구 센터
-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 예산 정책

스마트 미래 창출은 디지털기술, 과학적 발전, 그리고 융합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고도의 기술응용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과 문화적 요인이 갖추어 있어야만 스마트 미래 창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응용에 앞서 다음의 소프트웨어적 요인의 전제가 필요하다.



- 사회적 정의: 법과 질서, 책임감, 투명성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조성
- 창의성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문화와 환경조성
- 취업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선호하는 문화조성
- 기업가 정신, 위험감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조성
- 공평한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라는 문화조성
- 협력적 리더십, 집단지성, 공유가치, 공유목표를 표방하는 사회조성
-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을 지배하는 것 보다 봉사한다는 문화조성
- 스마트한 미래 구축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회조성

우리나라는 디지털기술의 최첨단 국가이다. 우리국민의 뛰어난 두뇌, 열심하, 그리고 빨리빨리 정신, 최고의 디지털기술을 바로 앞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 요소에 접목했을 때 끝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스마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석좌교수)

[Issue]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과연 왔는가?



김해암 (의대 58)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 한국 민족의 외교 수준을 보여 주었다면 일제하에서 일어난 상해임시정부와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활동한 흥사단을 비롯한 서재필, 이승훈 또 이승만 등이 펼쳐낸 외교활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대한민국과 북조선공화국 DPRK가 펼쳐내려온 70년에 가까운 외교정책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으며 그 수준이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의 위안부(소위 양부인)의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부 요원에 잠재의 식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번에 겪은 외교적 차질을 반복해서 안된다는 것을 미리 다짐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연말로 일단 종지부를 찍은 위안부 문제를 양심적 일본외교전문가, 기무라 모도 시 고베대학 교수는 일본경제신문 2016년 1월 14일자에서 이렇게 평가하였다.

존엄성을 손상시킨 문제였음을 일본 정부가 통감하고 아베신조 수상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표현을 한다.

3) (살아있는)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일화 10억엔 정도의 금액을 일괄하여 처리한다.

4) 양국정부는 금융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

5)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 서 있는 소녀위안부상을 한국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한국 외교의 위험 수준 (일본을 바로 보고 바로 알자)

“위안부 문제? 일한합의”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을 더 의식”(함으로써 이루어진 교섭이었다), 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1) 일본측의 부담에 비해 한국측은 더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갔다.
- 2) 박근혜 정권의 중국접근으로 미국의 경계심을 높인 바 있다.
- 3) 북한의 핵실험과 박근혜 정권의 압력바람의 공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일본정부의 부담은 적은 반면에 한국측 부담은 너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측에서 보면 #2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고 보면 #3의 거금으로 배상을 한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니 일본의회에서 거론할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측에서 보면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의 철거라는 것은 정부가 절충 노력한다는 뿐인 합의내용이고 거출금액을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며 생존 위안부와 그 지원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첫째로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인 면에서 미국국회와 세계여론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20년 이상 끌어온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성의 타락으로 보고 한국의 세계의 동정을 받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일본과의 1대1의 교섭과 정치적 대등한 자세를 잡을 기회를 만들므로써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 문제를 더 큰 입장에서 다루어 가려는 데 있다. 민비의 살해사건 등을 비롯한 역사인식의 타당성을 계속 문제시해 가야 할 것이고 한국정부는 그런 심산이 있다고 본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심일대의 중국경제정책의 참여라든지, 중국의 동남아정책의 방관적 태도는 그대로 효력과 필요성이 불가결하게 있다는 것을 내놓고 천명하고 한국의 핵심적 외교정책은 미국과 중국을 동등하게 중요시함을 강조하고 절대로 한편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박대통령이 일류대국의 대접을 군사행진에서 받은 것은 자축할 뿐만 아니라 내외 외교에 성공이라고 천명하고 열국이 기쁘게 받아주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면 왜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요행히 있는 사실이고 미국에도 유익하게 될 수 있는 박대통령의 담대한 결정을 환영 축하해야 할 일이다.

셋째로 한국의 외교는 이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간 대국적인 긍지와 자부심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감싸주는 외교를 벌리는 기회가 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부가 외교관들만의 노력뿐 아니라 한국의 지식층 특히 각 대학의 외교전문교수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무라 교수같은 학자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야 할 때라고 믿고 싶다.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벌인 십수년간의 외교전의 최종단계에 와서 양보 아닌 양보의 결과가 되고,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자진하여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전에 사용할 기틀마저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독도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보이기에 염려스럽다. 일본은 틀림없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밀어부칠 듯하다.



6분 편집 영상, 미 연방 의회 상영도

일본정부와 민간언론이 “1965년에 있었던 한일수

교조약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위안부의 문제도 그 조약에 포함되었다”는 공염불을 수없이 되풀이 해 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이 자진하여 외교적으로 종결하였다고 선언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14-5명의 생존자를 위한 조치이고 한일관계를 수습해 북한과 중국에 대처하는 미국의 외교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지, 위안부 문제가 해결을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외교전에서 써나 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반세기 이상 겪어온 미군 상

- 1)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확인
- 2)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부가 관여하여 다수의 여성들의 행세와 인격의

영화 '귀향'의 한 장면



제25차 평의원회 준비 박차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될 제 25차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평의원회의는 금요일 브레인네트웍 세미나와 필라델피아 문화체험 행사, 저녁 식사 후 각 지부 장기자랑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토요일엔 평의원회의, 배우자 관광, 귀빈만찬과 예술제 등의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일요일에는 ‘서정화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와 손재옥 미주총회장 초청 식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평의원회의에는 모교 성낙인 총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 줄 예정이며, 평의원회의의 주강사(Keynote Speaker)로는 오준(문리대 불문과 74) 유엔대사가 확정되었다. 오준 동문은 2014년 북

1. 김용현 교수(상대 59): Professor of Finance, Carl H. Lindner College of Business, University of Cincinnati
‘글로벌시대의 한국경제와 금융: 도전과 비전’ (The Korean Economy and Finance in the Global Era: Challenge and Vision)

2. 한창규 교수(의대 75): Professor of Psychiatry, Department of Psychiatry, Faculty of Center for Neurobiology and Behavi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다양한 소인들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병리 기전에 관하여’ (Genome, Epigenome and Their Interactions Converging on Substrates for Schizophrenia)

3. 김영수 교수(공대 76): Jimmy D. Clark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재미한인과학기술협회(KSEA) 회장
‘한미과학기술의 연결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 (Linking Science & Engineering Between the U.S. and Korea and Nurturing Leaders for Next Generation)

4. 김연호 연구원(사회대 89): Senior Researcher, U.S.-Korea Institute(한미연구소); and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SAIS), Johns-Hopkins University
‘북한 핵과 한반도 국제정치’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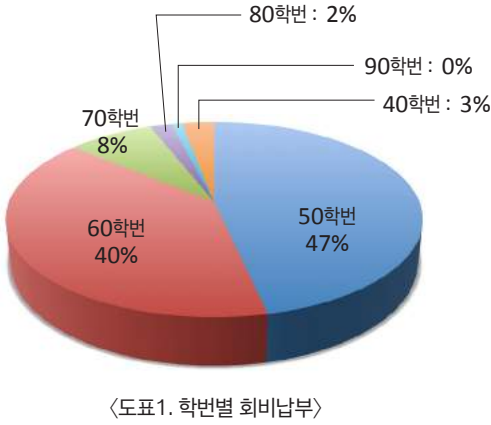
일 정 Tentative	시간	6/24일(목요일)	6/25일(금요일)	6/26일(토요일)	6/27일(일요일)
	오전		브레인네트웍 1부	평의원회의의 1부	예배/휴식/하이킹
	오후	등록/체크인/인사	브레인네트웍 2부 필라델피아 문화체험	평의원회의의 2부 배우자 관광(회의중)	골프
	저녁	환영식사, 소개	지부소개/장기자랑	만찬	총회장 만찬

회비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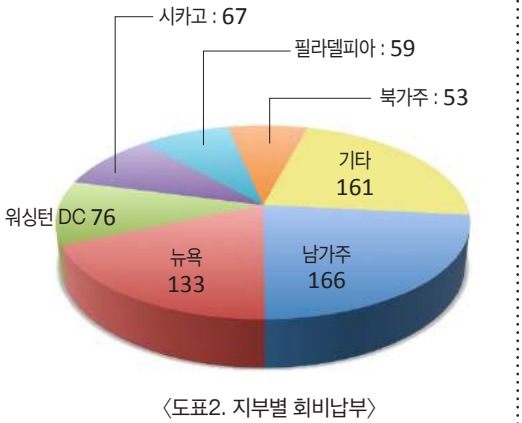
3월 31일까지 지난 9개월 동안 접수된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회비를 내신 동문의 숫자가 6,852명(448 동문부부 포함) 중 10.4%인 715명입니다. 회비납부금을 학번대로 나누면 도표 1과 같습니다. 도표 2는 지부별 회비납부 통계입니다. 총 회비납부액은 \$53,575, 총후원금은 \$58,605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예산(\$201,400)은 40%의 동문께서 회비를 내신다면 이 회비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0% 정도 되는 참여와 이 부족한 재정을 후원금으로 또는 광고비로 도와주시는 모든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비로 참여하시는 동문이 현재의 10%가 20%가 될 수 있고 20%가 40%가 될 수 있도록 한 동문이 또 한 동문을 미주 동창회로 초대합니다. (재무국장 이성숙(가정대 74))

지부	회원수	회비납부 회원수
남가주	1,789	166
북가주	442	53
뉴욕	1,687	133
뉴잉글랜드	272	11
달라스	91	7
룩카마운틴스	51	5
미네소타	49	7
샌디에고	145	14
시카고	464	67
애리조나	39	4
앨라스크	4	2
오레곤	60	9
오하이오	89	9
워싱턴 DC	598	76
워싱턴 주	135	12
유타	20	3
조지아	131	21
중부텍사스	5	1
캐롤라이나	55	5
테네시	39	4
플로리다	82	13
필라델피아	242	59
하와이	46	3
하트랜드	109	15
휴스턴	208	16
합계	6,852	715

〈미주동창회비 회비납부 현황(2016.3.31)〉



〈도표1. 학년별 회비납부〉



〈도표2. 지부별 회비납부〉

입학식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부 3,353명이며, 대학원 3,539명으로 총 6,892명이다.

성낙인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사사로운 이익 추구와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 모두의 가치를 드높여 줄 줄 아는 인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 곧

선한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큰 뜻을 품어보고, 웅혼한 기상을 가슴에 담고 세상과 마주할 것이며, 깊은 내면의 성숙을 위해 기꺼이 고독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것”을 당부했다.

자연과학대학 김빛내리 교수가 입학식 축하 연사로 나서 신입생 후배들에게 상상을 키우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총동창회 1학기 장학금 수여식 16억 지원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544명의 후배들이 장학사업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창회는 지난 2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결연장학생(140명)을 포함, 총 544명에게 16억여 원을 전달했다. 1학기 장학생 중에는 시각장애인 최민석(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군을 비롯해 새터민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장학생들은 행사장 입구에 비치된 ‘장학금 선순환 서약서’에 서명과 졸업 후 후배들의 꿈을 이루는 장학사업에 동참할 것을 선포 앞에서 다짐했다.

장학생 대표로 강단에 오른 홍선기(자유전공13집, 사진)군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장학금을 마련해 주시고 명예로운 서울대

인으로 우뚝 성장해 주길 바라는 선배님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업과 인격도야에 힘쓰겠다”며 “선배님들의 조건 없는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총동창회 장학금이 후배들의 꿈을 이루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회장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동문들이 출연한 막대한 장학연구기금으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한 장학혜택을 받은 후배들은 사회에 진출해 높은 성취를 이룬 뒤 다시 후배와 모교를 위해 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장학기금의 선순환이야말로 이들 일류대학들의 공통점이며 서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모교 연구 경쟁력,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



김선영 (문리대 74) 생명과학부 교수

이 왜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핵심은 교수 개개인 n분의 1로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와 교수들 사이의 온정주의이다.

평가 작업에 참여한 미국 메릴랜드대의 콜웰 교수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소수 분야를 집중 육성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려면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좋은 교수를 뽑아야 하는데,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분야는 우선순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서울대의 관행상 이는 교수회의 협의를 거치는데, 저마다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르니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어쩌다 신입 교수를 뽑는 단계에 들어간 거야 전쟁 수준이다. 분야와 사람을 놓고 ‘세력’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중국에는 교수 회의에서 표 대결까지 벌어지니 아예 교수를 뽑지 않고 보류하는 일이 요즘도 있다. 정년퇴임으로 물러나는 자리는 더욱 어렵다. 퇴임

하는 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학과 출신 교수들의 의견까지 들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캐년 생명과학 주식회사의 나이트 부사장은 생산력이 낮아진 시니어 교수들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공간을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니어 교수가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힘이 학부장에게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평

능력이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유명 학술지의 영향 지수라는 것과 발표 논문 수를 가지고 계량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은 사실 대학 자체적으로 못 하니 20여 년 전에 정부가 강제 도입했던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대학은 교수 1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된 작은 학과가 대부분이었는데, 교수들이 선후배나 은사 관계로 얽혀 있어 서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니 확실히 집행하게 되고, 결국 각종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용과 실제 가치를 가능하는 정성 평가가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해외 석학들이 지적한 점들은 하나같이 서울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현대과학의 방향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디테일에 강한 학부장이나 학장 혹은 총장을 뽑아, 그들에게 5년 이상의 임기를 주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다양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학장이나 총장을 뽑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보고서로 촉발된 사회의 관심을 서울대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발췌〉

가위원은 성과가 좋은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주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연봉이나 공간에서 의미 있는 차등 대우를 하려면 교수 회의에서 그러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렵다. 교수들은 능력 차이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수들은 자신들이 평가받고 비교되는 데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연유로 강의의 질도 연구 생산성도 교수 개인

이 때문에 해의 석학들이 지적한 점들은 하나같이 서울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현대과학의 방향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디테일에 강한 학부장이나 학장 혹은 총장을 뽑아, 그들에게 5년 이상의 임기를 주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다양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학장이나 총장을 뽑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보고서로 촉발된 사회의 관심을 서울대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의 석학들이 지적한 점들은 하나같이 서울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현대과학의 방향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디테일에 강한 학부장이나 학장 혹은 총장을 뽑아, 그들에게 5년 이상의 임기를 주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다양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학장이나 총장을 뽑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보고서로 촉발된 사회의 관심을 서울대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계학교

“서울대에서 알찬 여름방학 보내세요.”

서울대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전 세계 해외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 5주 동안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어 본교 교수진과 저명한 해외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본교로 돌아가 학점을 인정받는 영어 Summer School인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SNU ISI)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국제하계강좌는 소규모 클래스를 추구하고 있으며, 교수진은 서울대와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초빙된 Full Time Professor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유용한 현장경험도 배울 수 있다.

100%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하계강좌는 해외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학(한국어 포함) 및 아시아학뿐만 아니라 마케팅, 심리학, 화학 등 일반과목을 포함하여 30여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최소 1과목(3학점)부터 최대



3과목(8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며, 3월1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http://isi.snu.ac.kr>)으로 신청한다. 또한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해외 각

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서울대 국제하계강좌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20면 참조>

모교 ‘식사 한끼 1000원’ 저녁까지 확대



▲ 전원의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성낙인 총장과 학생대표들

모교는 재학생들에게 학생회관 식당에서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식사’를 3월 2일(수)부터 저녁식사가 확대하여 제공한다.

서울대는 ‘1,000원의 아침식사’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복지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대는 규칙적인 식사를 유도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내도록 하

고, 식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1,000원의 아침식사’를 시행하였다. 2015년 6월 ‘1,000원의 아침식사’를 시작한 이래 식사 인원이 약 2배 증가하였고, ‘1,000원의 저녁식사’를 시행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식사 수준 향상, 다양한 메뉴 개발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한층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의 물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약 197만으로 서울시내 대형 건물 중 1위였다. 상주 인원이 3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실험 용수를 사용하는 연구시설이 많아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1인당 물 사용량이 175L로 연세대 83L, 고려대 54L 등에 비해서 2~3배 이상 높아 비효율적으로 그동안 ‘물 먹는 하마’로 불려왔다.

서울대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울대는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물 사용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절수형 양변기와 오수 하이브리드 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물 절약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물 소비의 21%를 차지하는 화장실 용수 줄이기부터 나섰다. 기존 양변기의 경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6~13L의 물을 소비하지만 절수형 양변기는

‘물 먹는 하마’ 오명 벗으려

4~5L 수준으로 회당 소비를 최대 70%가량 줄일 수 있다. 8100여개에 달하는 변기를 교체하면 연간 2억5000여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공대 등 20여개 건물에는 하이브리드 오수 시설을 설치한다. 세면 후 나온 저 오염 오수와 빗물을 함께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오수를 정제하고 빗물을 섞어서 쓰면 화장실 용수로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 물 사용량의 15%를 차지하는 실험 용수와 새는 물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실험실의 냉각수를 줄이거나 재이용하고 노후 배수관을 교체해 연간 30

만 t의 새는 물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이런 대대적인 물 절약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1인 당 물 사용량을 100L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한무영 서울대 지속가능 물 관리센터장(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최신 물 절약 기술을 서울대에 적용한 후 국내 건물에도 보급하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My Story & Your History

My Story &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있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학교에서 보내고,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문님의 story와 과거, 현재 사진을 news@snuua.org로 보내주세요.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최경홍(CA, 공대 60)

1. 저는 1966년 공대를 졸업하며, 한국에서 잘 살 희망이 없다고 느꼈기에 풍요로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잘 살아 보려고 유학과 이민을 동시에 했지요.

2. 사랑하며 정의롭게 열심히 살자.

3. 미국은 역시 대국이다. 만민에게 공평하고 정의가 살아있고, 멋있는 나라다. 한국에 살았다면, 부정부패 속에 섞여 살며, 남보다 유리한 교육 혜택에 갑질을 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나도 부정부패에 걸려 비참한 인생을 마지막으로 겪으며 살지 않았을까?

4. 요즘은 IT, Internet, Telecom and Computer 분야에서 성공한 Startup들의 자서전을 많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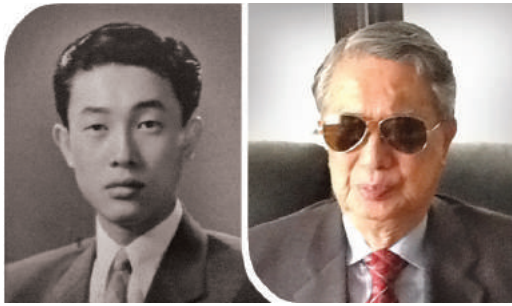
영화는 Dr. Zhivago, National Velvet, Orchestra 소녀 등. 음식은 냉면갈비, 간장게장, 탕수육 등. 좋아하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쁜 강자와 싸워주는 정의파 청년, 장년, 노년들.

가 본 장소 중 인상깊었던 곳은 유럽의 유명한 곳들: 발칸 반도 나라들, 불란서 Chateaux들, 독일 남부 스위스 부근 히틀러 피서지, 영국 Castles 등등

5. 적게 먹고 운동하고 기쁜 춤추고 아름다운 음악 들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건강해진다.

6. 연애를 진하게 해본다. 예술을 한가지 택해서 열심히 연습하여 발표한다. 가난한 족속을 도와주려 Africa로 선교간다.

7. 동창회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더 많고 좋은 Program들을 하기 바란다. 왜 한국은 아직도 부정부패 부조리가 그렇게 판치고 있는지 연구해 발표해 보자. 남북 통일을 위해 우리 해외에 있는 동창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서 돕도록 하자.



조태환(NY, 상대 56)

1. 저는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1960년에 졸업하였는데 상과대학은 경영대학이 되었다 하고, 경제학과는 사회과학대학으로 옮겨가서 지금은 친정집이 어딘지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유학을 왔는데, 미국 도착 두달 뒤 JFK 대통령이 암살되어 동아일보 통신원 자격으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도 참석했던 장례식을 워싱턴에 가서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보니 처음 올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인회계사가 되었고 뉴욕시립대학교 Queens College에서 10여년간 회계학 강의를 해본 것 이외에는 계속 공인회계사로 일해 왔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의 초대회장을 한 적이 있고 장로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얻은지가 40년이 넘었지만 부끄러울 뿐입니다.

애초에 미국에 정착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국에 온 동기는 “철들지 않은 청운의 꿈”도 있었지만 어중이 떠중이 미국만 갔다오면 “출세”했던 것을 본 시대적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2000년도에 실명과 함께 은퇴한 후 백수로 지내며 뉴욕 한국일보에 “아마 추어가 보는 미국역사”라는 컬럼을 2년째 계속 쓰고 있습니다.

2.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의 호의, 친절,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아들, 딸 하나씩 두고 손자손녀 4명을 둔 것이 내가 이런 인생의 최대 업적입니다. 특별한 좌우명은 없지만, 후손들이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 남의 머리를 누르고 뛰어 오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3. 김포국제공항에 환송나왔던 가족들에게 탑승계단 위에서 벗었게 손을 흔들고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부터 겁잡을 수 없이 쏟아지던 눈물을 닦고 창문을 내다보니 비행기가 벌써 동해상공을 날고 있을 정도로 쪼꼬마한 나라를 떠나 비행기로 가도가도 끝이 없는 나라 미국에 도착해보니 “무서울 정도로 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는 “엄청나게 부자나라인데 남비가 많구나”라는 오해도 있었는데 실은 우리나라보다 거품이 없는 나라인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나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혹 저의 어렸던 시절의 “청운의 꿈”들이 다 이루어 졌다면 지금쯤은 도리어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되어 감회가 무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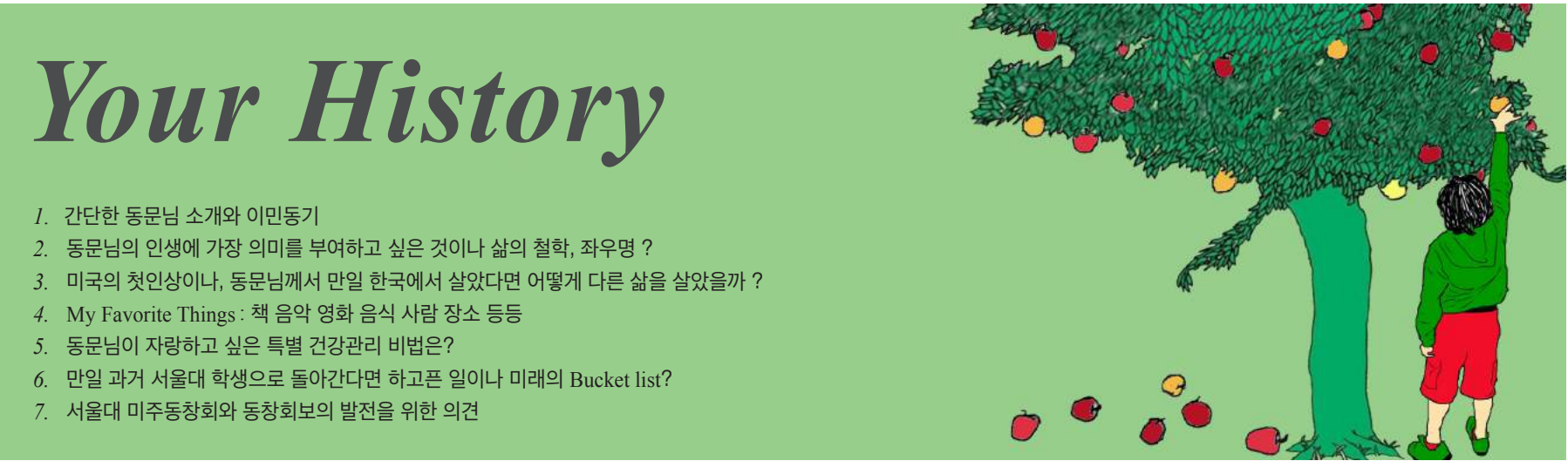


4. 여행을 좋아해서 호주만 빼고 5대주를 조금이라도 밟아 보았습니다. 그 중 절반은 사실 실명으로 인해 마누라의 도움으로 청광과 촉각으로만 다녔습니다 특별히 Quebec의 winter festival에 갔다가 ice hotel에 들어가 cognac 한잔을 ice glass로 마신 것이 항상 가고 싶었던 Sweden의 Ice Hotel을 대신했네요. 음식은 한식을 좋아하고 형편이 좋을 땐 불란서 음식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고등학교 때 네 번 연속으로 본 Tom Sawyer의 모험, Sound of Music, Miss Saigaon 등은 눈물을 흘리며 관람한 기억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부러워서 무조건 좋아합니다. 미 대통령중에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5. 아직까지 큰 질병은 없고, 철이 들면서부터 “내가 몸이 아주 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교회에 계속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젊었을 때에는 흡연도 오래 했고 지금까지 만주도 저녁에는 한 두어 잔씩 하고 있어서 건강비법이라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15년 전에 사고로 양쪽 눈을 수술받은 후 완전 실명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4년전 위암수술을 받은 후 완쾌되었고 작년에는 둘째단에서 넘어져서 어깨골절수술에다가 Full Hip Replacement 수술을 받았는데 그간 잘 재활이 되고 있어서 “건강비결”이라 할 것들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생존축복”은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타고난 성격과 자질이 있는 탓에 역시 옛날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상에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아주 귀한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다면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Bucket list는 요즘 틈틈이 족보를 주석을 가미해서 의역하여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미국에 새부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의 후손들에게 가보로 남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Aurora를 청광하기 위해 Iceland를 가보고 싶습니다.

7. 동창회신문이 모든 동문들에게 우송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선정된 Group Tour도 계속하시면 좋겠고요.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박노면(LA, 사대 50)

1. 1954년 사대 생물학과 졸업 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다 1973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고등학교 교사로 1978년부터 2005년까지 27년간 일하다 은퇴했다. 현재 통역과 보험관계의 일을 하는 박노면공사 사장으로 있다.

2. 나의 인생의 대부분은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 50년 공주사대 수학과 졸업했고, 54년 서울대 사대 생물학 전공 졸업, 58년 연세대 이학 석사, 1962년 San Mateo 대학 유학, 1978년 De Anza 대학 인문학과 졸(문학준학사), 1984년 샌프란시스코 대학 다문화교육학전공으로 교육학 박사 받음. 27년 동안 미국에서 교사로 지내면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평생 해온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3. 미국은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이다. 한국에 있었으면 대학에서 가르쳤을 것 같고, 미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4. 다문화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사는 사회는 어디나 다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좋아하는 음식은 각 나라의 다른 전통 음식을 좋아한다. 음악과 악기를 좋아하며 성악을 좋아한다.

5. 특별한 건강 비법은 의사의 지시와 충고를 지시대로 순종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6. 나의 bucket list는 강요나 강제가 없는 미국에 더 많은 한국인의 진출을 기대하며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회가 형성 되는 걸 돕고 싶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공존 공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특별히 미주 동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다민족 문화행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서 국제화시대의 예술과 문화생활을 많이 인조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충자(LA, 간호대 61)

1. 경기도 강화군 시골에서 가난한 목사의 첫딸로 태어나 송의여중고 졸업, 65년 간호대 졸업 후 Exchange RN으로 뉴저지에서 일하고, 첫사랑 (6.3 데모주동자로 집행유예 3년 후)과 결혼 후 71년도에 LA로 이민. 22년 동안 LA County USC 에서 일했다. 목회자의 아내로 해외선교를 돕고 있으며 5 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2. 70년대 교회개혁에 앞장선 부군의 조력자로 교인들의 이민생활 안착을 위해 Medical Interpreter로서의 평생을 자원 봉사했다. 면허증 없는 사회사업가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3. 고국에 살았다면 음악사역자도 되었을 것 같고, 소박한 농촌교회 목회자의 아내의 삶을 보냈으리라.

4. Movies: War & Peace, Thorn Bir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Music: Handel's Messiah, Mozart, Beethoven, 등의 Classic 음악을 좋아한다.

Travel: 예루살렘 성지순례, 유럽의 성지들, 캐나다의 록키산맥.

5. 모든 음식 골고루 먹기, 적당한 체중과 걷기, 라인댄스, 정원 가꾸기, 죽어가는 화분 꽃나무 사다가 살려서 꽃과 열매를 보는 기쁨, 새 이불을 wool knitting으로 만들어서 이웃의 첫 손주들에게 주는 기쁨, 합창단에서 노래하면서 정기연주회 하는 기쁨, 이러한 기쁨들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6. 앞으로의 삶은 이웃을 기쁘게 대접하고, 항상 많이 웃는 웃음 전도사가 되길. 여행을 좀더 하기, 선교하는 삶을 살기, 행복 바이러스 전하기.

7. 55년전의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새기면서 정독하고 있어요. 자랑스런 동문들의 소식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배움의 시간을 갖는 즐거움이 있네요. 수고하시는 편집부 여러분들께 뜨거운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자의 한마디

그동안 48명의 동문들을 모셨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재미있게 읽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편집부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또 어떻게 이런걸 생각하게 되었느냐고 묻는 동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1992년 뉴욕동창회에서 part time으로 일했습니다. 유학을 빈자하여 대학원을 갈까하며 뉴욕에 왔을 때, 20대 후반이였네요. 그 당시 컴퓨터는 타이프를 대신할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뉴욕동창회의 이전구 동문이 회장을 맡은 후 종이에 적어서 받아온 각 단과대학의 동문 주소들을 컴퓨터에 넣는 간사로 일주일에 20시간 일했습니다. 그때 각 동문 한분 한분께 전화를 드리고 주소 확인을 했는데, 많은 동문들이 까마득히 후배인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들의 얘 이 미국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마음에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표적인 이유가 아이들 교육이라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너무나 당황스러운 정치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기억은 그당시 문리대 주소록만 영어로 타이핑되어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영어로 또박또박 3음절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분이 마침 유엔 대사님이어서 전화 받은 사람이 놀라며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유종하 대사님) 또한 저는 그당시에 “미스 허”라 불렸는데 좀 싫고 자존심이 상했었네요. 그런데, 20년 전업주부로 살면서, 다섯 아이들의 엄마로 살면서 그 옛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을 때 저의 아이들이나, 미국 친구들이 제가 결혼 전에 굉장한 job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조금 우스웠네요. Ms라 불린 사실 굉장한 job이었음이 분명하지요. 지금 24년이 지난 후 다시 그때의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My story는 “The Hard Questions for an Authentic Life”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00 Essential Questions for Designing Your Life from the Inside Out 이라 쓰여진 Susan Piver의 책을 우연히 읽게된 후 나도 이렇게 self-help question을 감히 선배님들께 묻고 싶었네요.

일제시대를 겪고, 전쟁을 겪고, 충분치 않은 교재로 공부하고, 불안정한 조국을 위해 젊은 시절의 많은 시간을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채찍질하며 부지런히 달려온 선배님들의 인생이야기, 그것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이 녹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석같이 귀한 보배입니다.

꼭 전공을 살려서 그 분야에 무엇인가 이룩했다고 성공한 삶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얘기를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의 성실함이 증명된 축복입니다. 또 그것을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 인생이라 불리우는 이 게임에서 응용할 수 있는 후배들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플로리다 : 골프대회



지난 2월 29일 플로리다지부 회원들이 골프대회를 가졌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앞으로 플로리다지부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골프대회에는 8명이 참가했으며 저녁식사 모임에는 9명이 함께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곳은 지역 특성 상 동문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플로리다에는 흔히 snow birds로 일컬어지는 겨울철 방문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Palm Beach County에는 vacation homes을 마련하고 겨울철에 이곳에 내려오는 동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골프대회에 참가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동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직함은 생략: 조동진 (공대), 선우건영 (의대), 이문휘 (문리대), 윤기향 (법대, 지부회장), 유영래 (농대), 계동휘 (치대), 이지훈 (의대), 김종권 (의대) <글: 윤기향(법대 65) 회장>

남가주

첫 임원회의 지난 2월 25일 JJ Grand Hotel에서 는 총 31명의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단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 취임 후 첫 번째 임원회의였다. 민일기(약대 69)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회의는 교가제창에 이어 김 회장의 인사와 임원 소개가 있었는데, 신입 주요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 성주경(상대 68), 총무국장 민일기(약대 69), 재무국장 차기민(공대 86), 사업국장 홍성선(약

대 72), 서기 한석란(미대 71), 행사위원장 이학진(농대 71), 문화위원장 홍선례(음대 70), 가족의 밤 위원장 염인숙(가정대 78), 안혜정(가정대 77), 대외협력위원장 김인중(농대 74), IT위원장 조무상(법대 70), 자원위원장 홍광식(공대 62) 및 단과대 회장단 소개로 이어졌으며, 지난 2월 6일에 있었던 신년총회 보고와 2016년도 행사 일정 소개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3/17 상임이사 초청골프, 4/16 춘계 골프대회, 5/7 춘계 가족야유회, 5/9~5/14 미대와 서울대 동문 소장품 전시회 및 경매(PARKVIEW Gallery), 8/6 Hol-

lywood Bowl 가족의 밤, 9/3~9/5 Mammoth Lakes 가족 Camping, 9/8~9/21 미대전시회, 10/22 원로선배 초청만찬 등이었다.

그 외 6월 평의원회 참석자 선정, 라철산(문리대 64) 편집위원장의 남가주 총동창회 40년 발자취 편찬에 관한 설명, 조무상 IT 위원장의 남가주 총동창회 Web Site인 www.snuasocal@gmail.com 내용 설명과 민일기 총무국장의 단과대학 주소록을 snuasocal@gmail.com으로 보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어 질의 및 토론이 있었다.



골프대회 3월 17일, LA에서 남쪽으로 20여마일 떨어진 La Brea City에 위치한 Westridge Golf Club에서는 상임이사 초청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해마다 신입회장이 역대 총동창회장(상임이사)들을 초청하는 골프대회이다. 참가한 동문들은 청명한 하늘 아래 푸른 잔디와 꽃내음이 감도는 골프장에서 봄 기운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총동창회장 김병연(공대 68), 수석부회장 성주경(상대 68)을 비롯하여 오형원(의대51), 방석훈(농대 55), 노명호(공대 61), 서치원(공대 69), 김동석(음대 64), 제영혜(가정대 71), 한종철(치대 62), 김상찬(문리대 65) 등의 상임이사들과 김인중(농대 74), 백옥자(음대 71), 홍광식(공대 62), 한효동(공대58), 최용완(공대 57), 유혜연(음대 79), 홍선례(음대 70) 등 17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골프가 끝난 후 MK BBQ Restaurant에서 디너파티가 있었으며 김병연 총동창회장은 3월호 동창회보를 나누어 주어 동창회보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3차로 간 노래방에서 노명호 회장의 흘러간 옛 노래, 그리고 김인중 동문의 춤을 결연인 “거짓말이야” 열창은 어느 가수 못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손에 손을 잡고 “친구여”를 부르며 우애를 다졌다.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시카고 : 제1차 이사회



시카고지역 동창회, 제1차 이사회를, 3월 13일 Drury Lane Conference Center에서 2016 이사진과 배우자, 등 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45명 출석이사, 18 이사의 proxies로 성원을 이루고 정승규(공대60) 회장의 주재, 김병윤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도 행사계획, 분과위원선출, 예산 등을 심의 통과하였다. 이어서, 각분과위원회별 사업보고, 동창회 산하 Golden Club

과 관악클럽의 사업소개가 있었다.

지역봉사사업의 일환으로는, 관악클럽의 지원을 받고있는 ENoK(Emancipate North Koreans) 봉사단체의 대표를 초청, 탈북동포 청년지원 사업의 성공사례를 들었으며, ENoK에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가결하였다. (연락처: 수석부회장 James Hahn(한경진) jimkhahn@gmail.com, 847-858-7556)

샌디에고



Winery Tour 지난 3월 12일 토요일, Escondido에 있는 Orfila Winery에서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아래 18분의 동문/동문 가족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현식(공대 54), 염두호(공대 57), 김현철(의대 57)/김완혜, 조형래(공대 57)/진안자, 박상호(치대 80), 서정용(공대 81), 심상철(공대 81)/심미리, 최흥수(자연대 87)/서은정, 이정석(공대 87), 오중호(공대 90), 이인태(공대 94), 한진주(자연대 99), 성혜승(사회대 99), 황정민(사회대 02).

모임 전날까지만 해도 혹시나 비가 올까 염려를 하였는데, 마침 당일은 맑고 따사로운 날이어서 야외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주셨고, 점점 더 활성화 되어가는 서울대 동문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 차려진 private bar에서, 드넓게 펼쳐진 포도밭을 바라보며 여러 종류의 wine tasting을 하였습니다. 임원진이 미리 준비해 주신 과일, 치즈, 크래커로 인해 와인의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면 즐거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망중한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이야기를 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만,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의지와 감정을 가진 우리는 언제가는 winery를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winery 직원으로부터 와인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무 가지를 짧게 유지하여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노력은 기본이고, 포도의 품종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이스트와 오크 통에 따라 풍미와 맛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 숙성을 위해 실내에 쌓여있는 오크 통(Oak barrel)을 보니, 그 오크 통에 들어 있는 모든 종류의 와인을 tasting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오크 통들 앞에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였습니다. 이번에 멋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심상철 지부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흥수(자연대 87) 회장>

볼링대회 & 김동혁 총무 송별 모임

동문회 친선 볼링대회가 2월 20일(토) Kearney Mesa Bowl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명의 동문/동문 가족들(존칭생략)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강동원(수의대 75)/강교환, 서정용(공대 81), 심상철(공대 81)/심미리, 김주성(농대 83)/진승희/김기현 최흥수(자연대 87)/서은정, 오중호(공대 90), 박성주(인문대 95), 김동혁(공대 98), 안세진(자연대 99), 박준호(공대 06)/양제윤.

감자튀김, 그리고 치킨과 맥주(콜라)와

함께 볼링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개의 조로 나누어 볼링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총 2개 라운드의 게임을 한 후 개인별로 점수의 총합을 이용하여 1, 2, 3위를 가려내었습니다.

게임 후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맛있는 맥주를 마시며 샌디에고가 미국 수제 맥주의 전문지인 만큼, 맥주제조, 재료, 발효, 효모 등등에 대한 얘기부터 곱창, 막창등 맛있는 안주, 맛집 이야기와,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이야기까지, 담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자리는 김동혁 동문(공대 98)과 샌디에고에서 갖는 마지막 동문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혁 동문은 이번에 경희대에 교수직을 얻어 월요일 (2월 22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지게 되어 매우 아쉽게 되었습니다. 한국 돌아가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활동 및 시상식도 진행하였는데 1등에게는 \$50 Shell gas gift card가, 2등에게는 \$25 Amazon gift card가, 3등에게는 \$10 Starbucks gift card가 주어졌습니다. 3등은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김동혁 동문께서 차지하여 \$10 Starbucks gift card를 기념품(?)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

용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귀국 전에 빨리 사용하고 돌아가셨는지?) 2등은 참가 동문 중 가장 어린 박준호 동문이 차지해 \$25 Amazon gift card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등은 스트라이크 두번 연속으로 치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 주신 심미리님께서 차지하여 \$50 Shell gas gift card를 수상하였습니다.



조지아 : 정기 총회, 이상엽 부회장 선출



조지아 지역 동창회(회장 강창석(의대 73))가 정기총회 및 대보름잔치를 지난 28일 도라빌에서 개최하고 이상엽(공대 85) 동문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정기총회, 2부 세미나, 3부 민족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

뉴잉글랜드 : 화음보스톤첼버의 봄 정기연주회

장수인 동문(음76)이 창단하고 대표로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화음보스톤첼버의 봄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매년 뉴잉글랜드의 긴 겨울끝에 새봄이 왔음을 알리는 첫신호로 자리잡은 화음보스톤첼버의 봄 정기연주회가 ‘새봄의 교향곡’이라는 타이틀로 3/12일 Tufts 대학 Gran-off Music Center 에서 열려 화창하고 포근한 보스톤의 봄밤에 걸맞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멋지게 울려 퍼졌다. 첫곡 하이든 심포니 ‘Le Martin(아침)’으로 봄의 아침이 삼광함으로 열리며, 이어지는 차이코프스키의 ‘Variation on a Rococo Theme’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첼리스트 김민경 씨의 열정적이고 기품있는 기교의 연주에 관객들은 흠뻑 매혹되었다. 2부의 모짜르트 심포니 No.40 in G minor가 연주될 때 새봄의 정기가 차오르는 장면이 보이는듯 생생하여 그 싱겁게 퍼져나가는 익숙한 곡의 아름다움에 음악애호가 관객들은 끊임없는 큰박수로 성원을 보냈다. 각파트의 수석연주자로 서울대 동문들이 자리잡고 있어 뉴잉글랜드 지역 동문들의 후원과 성원도 자부심을 갖고 이뤄지고 있다. (Violin 김현정(음02) 고은애(음08), Viola 최혜민(음02), Cello 이영숙(음01)).

2012년 창단하여 활발하고 의미있는 음악회를 통해 뉴잉글랜드 한미 community에 폭격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끊임없이 선사해 온 화음보스톤첼버오케스트라(대표:장수인, 음악감독: 박진욱)는 지역 한인전문음악인들로 구성되어 한미지역사

미네소타 : 이사회 모임

미네소타지부는 지난 3월 18일 남세현 동문택에서 1996년도 일차 이사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약 2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미네소타 지부의 일년 행사 계획 및 장학금 모금 방안을 의논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Seagate Technology에 근무중인 이주일 동문의 “Information Storage Technology”에 관한 유익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에서는 이운과 동문의 개인사정으로 공석이 된 부회장 자리에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상엽 재무가 선출됐다.

강 회장은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야 하며 일단 모일때는 정말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말하고 “우리 동문회가 서울대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주위의 공동체를 밝히는 소중한 모임이 되자”고 전했다.

집행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요실적으로는 웹사이트 제작, 비영리단체 등록 등이 있었다. 이날 총회는 집행부가 개정한 회칙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인준했으며 발표된 2016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정기총회, 봄(5월 15일) 및 가을 야유회, 한미장학회 지원, 음악회 지원, 송년모임 등

이 있었다. 집행부는 “지난해 동문회가 후원한 박민 동문의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전하고 “올해는 우리 동문회가 주최하는 형태의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최근 ‘자랑스런 서울대인’상을 수상한 주중광 조지아대학교 석좌교수가 ‘신학 개발 분야에서의 의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주교수는 “미국이 내리막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도 각 분야에서 리더의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하고 몇가지 자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기관 순위 최고 10개 중 7개 대학이 미국에 소재해 있고, 신학 개발분야의 80~90%를 미국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초과학 분야는 다른 나라들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분야다.

회에 교육적, 문화적으로 기여하며 음악을 통한 자선에 힘쓴다는 취지로 창단되었고, 동포사회에 단결과 자부심의 장이 되고 감동을 나누는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특산품이라고 장수인 대표는 소개한다. 타국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의미있는 좋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장수인 동문은, 이루어 나야갈 뜻 깊은 비전이 있기에 또한 지역내 후학을 키우고 길러내는 것이 선배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뛰었다고 깊은 뜻을 나누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연 2회 정기연주회 외에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축복의 한, 장학금모금 연주회, 시리아난민 돕기 음악회, 한반도 정세포토 음악회, 위안부돕기, 세월호 추모음악회, 한마음콘서트, 평화콘서트 등으로 지역 한미사회와 함께하는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음악회로 한인연주자들의 뛰어난 재능을 아름다운 사회환원으로 기여해 온 순수음악단체이다. 특히 지난 2015년 한해 동안은 조국의 광복70주년 분단70년의 한반도 역사를 조명하여 ‘역경을 이겨낸 한민족’, 아름다운 도전으로 값진 도약과 성취를 이뤄낸 현재의 모습,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콘서트, ‘아름다운 미래로’라는 부제의 음악회들로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시리즈 콘서트’를 기획진행하여 한미주류사회에 많은 관심과 이해의 성과를 이뤄내었다. 뜻있는 후원자가 많이 생기기를 꿈꾼다는 화음보스톤첼버에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낸다.

<연락처: sooihnee@comcast.net : Hwaumboston.org>

룩키마운틴스 : 통증세미나

룩키마운틴스 동창회는 3월 5일 가동 문화센터에서 교민들과 동문들이 참가한 통증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며 교제를 나누었다. 류광현 동문의 맛있는 사회로 시작된 모임은 상담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킵스웨이 교회의 임흥섭 목사님의 통증과 관련된 상담에 대한 발표와 송요준 지부회장의 통증의학 강의로 이어졌다. 모임 후 가동빌딩에 있는 만나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다.



영스타운 주립대 Dana 합창단이 우리 가곡 부른다



우수음악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장학 기금모금을 위해 매년 열고 있는 ‘미래를 여는 음악회’가 9회째를 맞는 올해도 특별한 무대로 펼쳐진다.

‘미래를 여는 음악회’가 오는 4월 2일 오후 7시 시카고 근교 샴버그 소재 프레리 아트센터(201 Schaumburg Court.)에서 Judson 대학 주최로 열린다. 올해는 한인 지휘자 이해종 교수(음대82)가 이끄는 오하이오 영스타운주립대학교 대나코랄을 특별 초청해 전반부에서는 슈

베르트의 G장조 미사 합창곡 등을 선보이며, 테너 진철민, 바리톤 김기봉, 소프라노 라은실씨가 솔로리스트로 무대에 선다. 후반부에서는 대나코랄 학생들이 산유화, 뱃노래, 아리랑을 한국어로 선사하며, 세 명의 솔로리스트들이 신작 가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음악회의 메인 프로그램을 맡은 이해종 교수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합창음악의 본산인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합창지휘 석사, 일리노이



이해종 교수

이소정 교수

대(아바나삼페인)에서 합창지휘 박사를 취득한 후 15년간 영스타운주립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하는 저드슨(Judson) 대학의 이소정 교수(음대84)는 “올해는 클래식 합창 음악에 정통한 지휘자 이해종 교수 지휘 아래 미국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신선한 합창 음악의 하모니에 심취하고, 한국 가곡과 민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매 회 음악회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색다르게 준비하고 있지만 합창은 처음이다. 시카고지역 합창단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고 합창음악을 선보이면 좋겠다 생각해 준비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따뜻한 나눔과 깊은 즐거움이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음악회는 한국의 차세대 음악인 1명을 선발해 미국유학 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명의 수혜자를 배출했다.

KSEA 전미 35개 지역서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학 실력을 점검하고 과학적 창의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김영수(공대 76)) 남가주지부(KSEA-SC·회장 김진이)는 내달 전국 35개 지역에서 제15회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KSEA-SC가 주관하는 수학과학경시대회(대회장 존 리)는 오는 4월 9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30분 클레어몬트에 있는 하비머드 칼리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4~1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경시대회와 학부도 세미나가 오전에 실시되고 4~11학년 대상의 과학경시대회, 9~12학년 대상의 물리경시대회, 시상식으로 이어진다. KSEA 남가주지부 김진이 회장은 “올해 대회는 재미과학협 지부 소재 35개 미주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경시대회 문제와 과학 실험과제는 경시대회 위원회가 출제해 동일하게 배포된다”고 밝혔다.

수학경시대회는 4~11학년 30문항(60분)이 출제되며 20문항은 선다형(multiple choice), 10문항은 서술형(free response)이다. 물리경시대회는 12문항(90분)이 주어진다. 수학과 물리경시대회는 시험 형식이나 과학경시대회는 개인 또는 2~3명이 팀을 구성해 주어진 실험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존 리 대회장은 “지난해 미전역 2,291명이 응시한 37개 지부에서 남

가주 대회에 2번째로 많은 201명이 응시했다”며 “올해는 LA한인상공회의소와 한국상사지사협의회, 서울대총동문회, 농심 등이 후원업체로 참여해 대회 진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을 위한 경시대회와 동시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 세미나가 실시되며 과학과 공학분야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인 하비머드 칼리지 투어도 제공된다. 또 KSEA 산하 YG 소속 UCLA와 UC버버인, 칼텍, 하비머드칼리지, USC, 칼스테이트 LA와 칼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자원봉사자 대회 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USC 교수인 김선호 차기회장은 “과학경시대회는 과학이 재미있고 유용한 학문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경쟁위주가 아닌 팀웍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제가 설정될 계획”이라며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함께 학생들의 창의력과 혁신적 해결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의: (323)762-5732, 이메일 ksea.sc@gmail.com)

<코리아타임즈>



2016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남가주 지부 김진이 회장(왼쪽부터), 존 리 대회장, 김선호 차기회장이 한인 학생들의 참가를 부탁하고 있다.

‘국악의 진수’ 세계에 알린다

모교 힐러리 핀침-성 국악과 교수



보스턴 근교 브랜드이스 대학교와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년 국악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오는 14일부터 1주일 동안 개최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다섯 명의 국악인(아쟁과 장구 이태백, 가야금 이지영, 대금 원완철, 피리 이석주, 판소리 임현빈)이 연주를 맡았다. 특히 모교 국악과의

힐러리 핀침-성(사진)교수가 사회를 맡아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하버드, 웨슬리 및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의 강의와 시연을 통해 미국 대학생들 및 참여하는 일반 청중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국악, 영혼의 소리> 콘서트는 오는 19일(토)과 20일(일)에 브랜드이스의 슬로스버그 뮤직센터에서 열린다. 한국 및 세계무대에서 국악의 입지를 넓히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중견 국악인들이 영산회상, 산조, 판소리, 승무, 청성곡, 찻길국, 시나위 등 연선된 음악을 통해 고요함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룬 우리 가락과 정서를 청중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게시판

앞으로 있을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미리 알립니다.

남가주

- 4/16 춘계 골프대회
- 5/7 춘계 가족야유회
- 5/9-14 Fund Raising 미대와 동문 소장품 전시회 및 경매

조지아

- 5/15 봄 야유회

룩키마운틴스

- 7/9 이상준(공대 건축과 64, 연세대 교수) 초청 강연회

- 손재욱 미주총동창회 회장 부군인 하형록 Tim Haahs 건축회사 대표가 이민사회와 미 주류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미소수민족연대협의회(NECO, National Ethnic Coalition of Organization)가 수여하는 2016년 엘리스 아일랜드상(Ellis Island Medal of Honor) 제 30회 수상자로 이형로 전 뉴욕한인경제연합회회장과 함께 선정되었다. 이 상은 1986년에 NECO에 의해 제정된 상으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한다.

【봄서신】

‘가시덤불 속에 가슴을 묻고’



곽상희 (문리대 52)

한걸음 두 걸음 겨울이 물러가면서 파스합이 오는가 하더니 또 겨울이 못 잊는 듯 다시 뒷걸음 치고... 사람도 겨울과 함께 몸살을 하고... 그러나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는 한겨울 기다림에 지쳤던 땅벌레들도 땅위로 고개를 내밀고 겨우내 짙고 기도하던 무릎도 다시 세우고 4월을 뛰어갈 채비를 하는 걸까요.

3월은 일제의 무모하고 혹독한 조국 강탈에 일어난 선혈의 달,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엘리웃의 말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잊지 못할 ‘사실’들이 가슴 아프게 쌓인 달, 아직도 피 흘리는 우리의 조국강산,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힌 채 두 겨울을 지낸 어린 영혼들, 그러나 그 4월의 역사 속에 정의에 타오르고 아름다운 애국의 작고 젊은 발자국들의 피 열매가 없었던들 오늘이 없을 우리의 현대사...

칠레의 애국시인 파블로 네루다(197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그의 ‘시’에서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 시는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속에서 불뿔어./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그렇게 얼굴 없이 / 그건 나를 건드리더군/...

결국 밤의 거리에서 자기를 불러왔다고 몸서리치도록 아름다운 시를 세상의 모든 시인들에게 안겨준 그는 <파리 리부지>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내 삶이 시와 정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전혀 해 본적이 없어요....나는 권력을 장악한 자들과 함께였던 적이 없고 내 소명과 의무가 내 행동과 시를 통해 칠레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항상 해왔어요... 내 시는 내 삶과 똑 같은 과정을 거쳐 이 고립되고 마나면 땅에 갇혀 거대한 군중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나선 것이예요. 내 삶이 성숙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인들이 고통을 받는 우물쭈문 환자라는 표현은 지난 세기의 유행입니다. 인생을 알고, 삶의 문제를 알고, 격류를 헤쳐나감으로써 극복하는 시인들도 존재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슬픔을 거쳐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가 한 말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연한 말을 여러분과 4월이 오는 차례에 말하고 싶은 것은 제 가슴을 뒤끓고 때리는 그 어떤 뒤흔들 탓일까요. ‘... 그들은 슬픔을 거쳐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듯이 슬픔이 없이 거두는 곡식단은 없지요. H 목

사님은 슬픔만이 슬픔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언어로 창조된 세상 또 그 언어는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과학이 말하듯 언어가 곧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저는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시인은 때로 시 한편을 두고 무서운 침묵과 싸우며 몸부림치지요. 그것은 그가 어휘하나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정직해야 한다는 집념이기도 하지요. 이 땅 수천만인의 시인이 있다 해도 오로지 그만이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진실’이 있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몸부림을 해야 하겠지요. 제 미완성의 시 중에 <가시덤불 속에서 노래하는 새는/ 자신이 노래하는 새라는 외박에 없다/ 자신을 덩불에 묻어놓고/ 웃으며 노래하는 저 새야/ 가시가 제 몸을 찌를수록 더 길게 빛나는 울음소리를 낸다...> 새는 가시덤불 속에 가슴을 묻고’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 달 어느 시인과의 답글에서 시는 영원한 미숙이란 말을 했어요. 시가 아름다운만을 노래하는 뮤즈인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지요. 시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인생의 신발이 되고 삶의 결례와 봉대가, 때로는 삶과 빼가지 되는 그런 시를, 그래요 마르틴 부버는 ‘시인은 시에게 시 중들이 없으면 작품이 파괴되든지 아니면 작품이 나를 파괴하고 만다’는 말을 했어요. 이 차례에 지난 달 제 ‘장미의 시작’이 실수(불충실)가 있었음을 부끄럽게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번 달엔 3월초 우연히 제게 제비새끼 한 마리가 왔어요. 그것도 길가에 떨어져 죽어가는 피 난자한 작은 날새 한 마리로. 그 영상은 물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느 초가를, 늦가를 저녁이나 아침, 아니, 어느 먼 유년의 어느 날 제게 온 그와의 만남이 이 3월에 다시 되살아왔다 할까

요. 그러나 시인은 제비새끼를 보면서 요즘 세계의 무모한 다름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어린 죄 없는 생명들을 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물론 네루다가 말한 권력에 대한 투쟁도 혐오도 결코 아닌 어느 한 시인의 양심의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시인의 이 가냘픈 목소리에 어느 한 독자라도 함께 마음을 열고 시적 반응을 준다면 이 시인의 의무는 끝났다 할까요.

‘길을 가다가’

곽상희

아침 산책길
제비새끼 한 마리 누워있다
어느 검은 무심(無心) 너를 뚫고 갔는지,
문득 올려 본 아카시아 나무
잔가지 하나 허공에 바둥거린다
나래를 파닥거리며 짹, 짹,
얕은 내 울음소리는
차바퀴에 동개어지고
너를 덮은 두려움에 떠는
캄캄한 동굴하나
시리아 국경 없는 지방의 어린 그 소녀,
나를 완연히 무겁게 한다
사소한 아주 사소한 죽음처럼
하늘가 메아리치는
너의 밤 2시의 목소,
하늘에서는
때 아닌 하얀 것, 너무나 하얀 것이
좁쌀라기 꽃잎이듯 울음이듯 내리고 있다



【상담칼럼】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조상탓



한정민 (농대 81)

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과 역울함을 유발시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쉽다. 특히 약한 배우자나 어린 자녀의 경우 오랜 질타와 비난에 젖어 ‘나 때문에’란 죄책감에 휩싸여 한다.

남탓이 많은 사람들을 부부나 가족상담 중에도 어렵게 만난다. 다른 이들을 연신 비난하며 ‘~때문에’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담사는 ‘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바라보고 인정하기 괴로운 심리적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군’이란 생각이 든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사고를 타인이나 환경에 전가시킴으로써 자신 불안을 해소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심리학적으로 ‘투사(projection)’라 한다.

영사기 안의 필름이 벽에 투사되어 우리는 스크린에 쓰여진 영상을 보지만, 필름은 본래 영사기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사실은 내 맘 속에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밖으로 투사되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자기 마음의 일부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 속에 좋지 않은 생각과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공던지기를 하듯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다. 잘못하는 것은 남이고 각하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진다. 예를 들면 필카 두려워 밖으로 화장도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증이나 검사에서, 사실은로부터 친밀감을 많이 무의식에 있고 배우자에게 투



내가 아니라고 생로 마음이 편하기만 배우자가 바람로 못 나가게하고며 의식과 분노를의부증 환자의 심리그들이 다른 사람으로고 싶은 강한 욕는데 인정하기 괴로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나 투사는 정신적 질환자나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만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에서 겪는 현상이다. 학생을 싫어하는 선생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불편해 ‘그 아이는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하거나, 남자들에게 성적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 ‘모든 남자들이

나에게 성적 매력을 갖는다’라고 느끼는 것, 또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해”라고 말하는 것 등이 모두 투사현상이다. 어떤 대상,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이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그 것에 관해 언급할 때 싫든 좋든 강렬한 반응과 감정이 일어날 때는 나의 무의식의 무언이 투사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이 보이면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투사를 인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자기의 마음을 모를수록 투사가 많이 일어나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탓이라고 비난을 일삼든가,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아무나 믿었다가 실망과 좌절을 겪게된다. 남의 탓이 많고 싫은게 많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남탓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행도 많고 본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만약 내가 유독히 어떤 사람을 싫어하거나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성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곰곰이 살펴보자.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그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음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바꿀 수 없는 남을 닮는 에너지를, 내 안으로 돌려서 나를 바꾸어가다보면 차츰 내면의 성장과 평안을 얻는 성숙함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카운슬러>

【특집】

도전 이야기

누나의 도전 이야기

나에게는 누이가 세 명 있다. 약사였던 큰 누이와 두째 세째 누이는 각각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했다.

한 5-6 년전 시카고에서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가 있어, 당시 재무의 일을 맡고 있던 집사님과 저녁모임에 갔었다. 마침 고교 동기가 당시 서울대 총장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나도 반사 영광을 맛볼겸 집사님과 같이 참석했는데 같은 테이블에서 선배되시는 분이 자기 가 나뉘던 문리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자기 클라스메이트에 K여고를 일등으로 졸업하고 물리학과에 들어온 유일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깨끗한 미인이고, 말도 없고, 수업과 실험실 과제만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버리고, 말을 걸기도 무서워서 졸업할 때까지 한번도 말을 못 걸어 보았다고 한다. 아니 졸업 직전 딱 한번 말을 해 보았다고 하였다. 졸



벨렉데미베렐의 도전



도전이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외교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10년 9월 홀로 한국에 들어왔다. 서울대 언어교육원을 거쳐 이듬해 9월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입학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공부벌레만 모인 서울대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도전정신과 학구열이 타올랐다”고 말했다.

언어의 장벽은 4년 내내 벨렉데미베렐씨의 넘기 힘든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가족과 같은 한국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던 한국인 형, 같은 과 친구들과 외국인이란 편견 없이 같이 어울리고 학업을 도와준 게 가장 고맙습니다.”

그는 40여명의 몽골 학생들을 대표해 몽골 학생회장을 맡았고,

업과 동시에 몇 명이 도미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도 미국 유학을 떠난다고 해 어느 대학으로 가는지 물어본 것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길 건너 연건동 의과대학에는 오빠가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동대문 밖 오백년 고루한 양반집에는 무서운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서 문리대나 법대의 많은 남학생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감히 말도 부처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가만히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틀림없이 내 누이 이야기였다. 당장 전화로 누이와 두 분을 연결해드려 오랜만에 두 분이 인사를 나누시었다.

내가 중학생이었던 50 년대, 돌이켜 보니, 꽃다운 나이의 대학생 누이는 정말 한 마리의 학(白鶴) 같았다. 나중에 나도 예과시절을 보냈던, 마로니에와 라일락 향기 스미던 문리대 교정에서 책 들고 누이가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당시 많은 문리대 남학생들의 가슴 속이 어땠을까 짐작이 간다.

6-25 전쟁, K여중 1학년때 일사후퇴를 맞은 **군행** 누나(사진)는 1953년 학교들이 서울로 환도할 때까지 시골 용인 춘구석에서(중학교가 없었으니) 봄에는 나물 캐고, 겨울에는 물들인 볏짚 같은 것으로 예쁜 바구니들을 만들고, 밤이면

초롱불 밑에서 할머니나 시골 노인들에게 “심정”이나 “효녀 지은”같은 옛 이야기를 읽어주며 배고프지만 곱같은 3년을 보냈다. 환도와 더불어 서울로 돌아와 K여중 3학년으로 유급하지 않고 복귀한 누나는 피난학교에서 계속 공부한 급우들과 비교해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첫번째 받은 성적표가 꼴찌에 가까웠다고 어머니께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 말씀하셨다. 그러나 누이는 자신이 스케치한 “큐리부인”의 초상화를 책상앞에 놓고 치열한 도전정신으로 밤을 새워 공부해, 몇 달후 일등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졸업 때가 되서 문리대 물리학과를 지망하려 했을 때, 당시 화학과 교수로 계시던 외숙이나 집안에서 “계집 아이가 물리학이 웬말이나? 약대나 의대를 가지!”...”하며 반대했지만 초지일관 물리학과를 지망, 당시 문리대에서 컷트라인이 제일 높았던 문리학과에 유일한 여학생으로 합격하였다. 1959년 물리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장학금 받고 일리노이 대학으로 유학, 석사, 그리고 solid state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고 Cornell 대, UC 샌디에고에서 post-doc(박사후 과정)하고 남가주에 정착 미국 defense industry(방위산업)쪽에서 오래 일하다 은퇴하였다. 지금은 같은 물리학과 몇해선배인 매부(이태진)와 샌디에고 해변조깅, 요세미티나 옐로우스톤 트래킹 등 나보다 젊은 은퇴생활을 즐기는 할머니이다. 젊은 시절 깨끗하고 이치적 외모의 정적인 미인이었지만 학문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치열한 동적인 삶을 살았다. 큰 딸 선영은 뉴욕에서 fashion design을 하는 예술가이고, 둘째 진영은 California superior court의 판사인데 범법을 읽은 사진을 보면 젊었던 시절의 누이와 같은 범접할 수 없는 깨끗함과 위엄이 느껴진다.



조중행 (의대 63)

NAVER의 한국의 과학 역사란에 들어가보면 딱 두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물리학 박사’로 나와있다. 몇 년 전 K여고 개교기념일에 장한 동창생으로 선정되었으나 본인이 사양했다는 이야기를 누이와 동년배 졸업생으로부터 들었다. 역시 나의 누이다운 결정이었다.

오늘 컴퓨터로 현재방 site를 돌아보다가 1960년 초 발간된 유가와 히데끼(湯川秀樹*)의 수필집 “물리의 세계” 일본어 초판본을 발견했다. 귀한 책이다. 금년 생일 선물로 누이에게 주어야겠다. *유가와 히데끼: 1949 년 일본 최초 노벨상 수상자. 교토대 교수. 장자 와 이태백의 시에 영향을 받은 중간자이론으로 물리학 노벨상 수상. 전후 일본 국민사기 진작에 큰 영향. 반핵 운동가, 시인, 수필가, 아인슈타인의 비문을 썼다. <시카고 홀부외과 전문의, 현 분당서울대학 병원 외국인 진료 소장>

웰빙을 향한 도전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웰빙(=참살이)이란 용어가 언제가부터 한국인에게서 매우 친숙하고, 또 삶에서 꼭 추구해야 할 문화생활의 덕목이며 필수품처럼 되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을 이루며 살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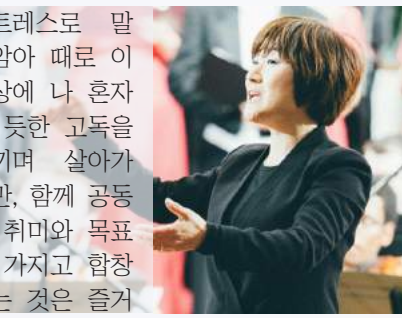
웰빙을 향한 도전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웰빙(=참살이)이란 용어가 언제가부터 한국인에게서 매우 친숙하고, 또 삶에서 꼭 추구해야 할 문화생활의 덕목이며 필수품처럼 되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을 이루며 살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웰빙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것은 주로 음식과 바이타민, 그리고 약초의 선택에 관한 것이나 대체의학, 혹은 대체요법에 대한 것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므로 저는 웰빙법에 대해 음악인으로서 색다른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노래하는 것, 즉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것이 웰빙비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합창단, 중창단, 찬양대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 주는 많은 좋은 점들이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좋은 영향들을 끼친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외롭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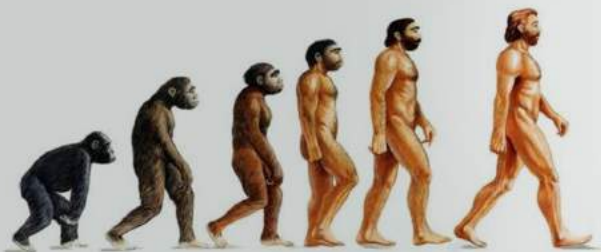
박혜란 (음대 84)

둘째, 손으로 악보를 들고, 눈으로 악보를 읽고, 머리로 악상과 박자를 맞추며, 호흡과 입술, 목소리를 사용하여 노래를 할 때 많은 근육과 생각, 감정들이 사용되어서 치매를 예방하며, 삶을 예술이나 신앙으로 더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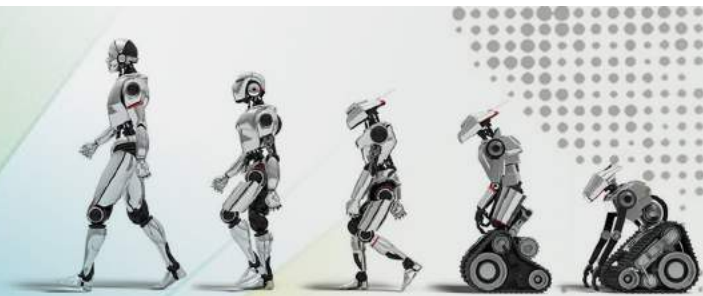
셋째, 협동심을 가지고 합창할 때 다른 합창단원들과 배려하고, 또 듣는 청중들에게 그 동안 연습하며 갈고 닦은 음악세계를 통해 어떤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눌 때, 합창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의 삶이 더 값어치 있게 되는 것을 실제로 합창단과 중창단등을 지휘하며 경험해온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동문 선후배님들께서 한 번 합창단이나 찬양대에서 웰빙을 향한 이런 도전을 실천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염두가 안나는 도전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그 도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테니까요!

<필라 카메라라 합창단/영성교회 지휘자>



AI 인공지능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AI가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바둑 9단의 이세돌이 구글의 컴퓨터 알파고와 대국을 하여 1승 4패로 결판이 났다. 바둑판 위의 한 수 한 수가 전파를 타고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구글의 VIP들은 직접 방한해 관전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해 세계의 모든 패스컴이 기사화했으니 과연 '세기의 대결'이었다. 아주 오래 전에 컴퓨터와 최고의 주판 전문가가 대결, 속산(速算) 시험을 해서 컴퓨터의 승리로 끝난 것이 생각난다. 주판은 물론이고 당시의 컴퓨터도 계산하는 도구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였으니 그 매치(Match)는 수궁이 간다. 그러나 바둑은 주판이 아니다. 이것은 4000년 '동양 지혜의 결정체'이다.

바둑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공부' 뿐만 아니라 '체력 훈련', '마음 수양'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융합하기 위해서 '참선'을 통한 체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바둑의 세계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둑 잠언(箴言)>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작년에 <미생(未生)>이라는 드라마에서 <바둑 잠언>이 <인간 행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를 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둑은 '지혜'이고 컴퓨터는 '지식'의 창고이다. 이 둘이 사이좋게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혜'와 '지식'을 권투시합처럼 링 안에 가두어 놓고 한 판 붙여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다. 자본주의의 진수를 보는 듯 하다. 현대의 사업가는 옛날의 마이다스왕(King Midas)이다. 사업가는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상품화하고 팔아넘기고 이익을 챙긴다. 물건이나 사람이 화사명이나 가리지 않는다. 가차없이 돈으로 환산해서 팔고 산다. 대국로 심오만볼, 백만불이 화자되지만 이 대화로 구글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기계가 대결해 나가면 얼마 안 있어 인간의 백전백패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컴퓨터에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더 영리해 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컴퓨터 지능'에 '감정의 몸'을 가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출현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AI가 아무리 스마트해도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호모 사피엔스(인간)는 20만년전 동물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약한 존재였지만 <딱 한 가지 요인>이 있었기에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감(靈感 Inspiration)>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 경험해 본 사실이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 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고보자"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번개가 번쩍하듯 떠오르는 해답! 그것을 <영감>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 영감의 고마움을 이야기한다. 연구가 진전이 되지 않아 방향전환을 고려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전혀 별개의 시츄에이션(Situation)에서 문제의 결론이 해상처럼 떠오르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다. 수많은 계산과 실험의 결과, 그 답이 맞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AI가 아무리 지능이 높고 힘이 세도 이 '영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사람'이다. 사람 중에도 컴퓨터와 AI를 제작하고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소수의 기술집단(Technocrat group)이다. 그들이 권력과 돈을 잡고 빅 브라더(Big Brother)의 꿈을 꾸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홍택 (상대 61, 주필)

인공지능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기 보다는 감정과 감동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독교적으로 풀이한다면 또 하나의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바벨탑의 높이에 한계가 있듯이 인공지능(지식)은 하나님의 영역(지혜나 영적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인간이 계속 창조주의 작품을 모방하려고 고집한다면(말하자면 악을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이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듯이 인간에게서 모든 영적능력을 빼앗아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태광(공대73)

인간이 원하던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은 '인간승리'로 봐야 할데지만. 반대로 공포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 것 같다.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됐고,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 개념이 재정립 돼야 할 것 같다. 인간이 해야 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이 인공지능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구현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한 '마인드'를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였다. 막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김기현 (인문대78, 모교 철학과 교수) (조선비즈 발췌)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가 약 30년전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AI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빠르고 편리한 생활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간편하게 준비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과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사는 삶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양원호 (자연대 84)

여러 사람들이 합작하여 만들어진 알파고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이세돌 혼자와의 대결은 시작부터 여러사람 대 한 사람의 대결로 보여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이 대결로 구글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한다.

알파고가 정말로 생각하고 창작할 수 있고 제한된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면, 우주 여행선에 태워 우주 탐험과 동시에 제 2의 지구를 찾으러 보내어 여행길, 또는 이민길을 열어주도록 하면 좋겠다.

또 컴퓨터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해진 것처럼 알파고에도 우리의 마음이나 질투 같은 감정은 넣어주지 않고 용서와 사랑하는 감정을 넣어준다면 세상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 생각합니다. 이재원 (사대68)

인터넷을 발명한 교수가 본인은 facebook을 쓰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인간의 의지, 감성, 영성, 신체를 그대로 복제할 수 없으며 어느 로봇도 Ski, Gymnastics, Figure Skating, X Game (Snow Boarding) 등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체의 율동과 리듬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활이 다소 편해지더라도 인간 본유의 영적 갈급함과 더불어 세세대의 삶이 make sense하는지 알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며 참다운 신앙과 예술을 통해 인간성을 찾기위한 추구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성숙(가정대74)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수십년은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구글 알파고 허서비스 대표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For knowledge is limited to all we now know and understand, while imagination embraces the entire world and all there ever will be to know and understand. Albert Einstein

인류의 나이는

사춘기에 이른 듯하다. 이제 인류의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혈연유전학의 발달로 인공신체와 인공지능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현대인류는 자식으로 낳고 기르는 가정을 꾸리게 된다. 우주인 세대가 빠르게 성장하여 새로운 개척지 별나라를 찾아 떠나기 전에 신석기시대부터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시작한 동아세아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생하고 부양되는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최용완 (공대 57)

예측불허입니다. 전문과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사람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을 절대 존중하는 사람이 개발을 주관해야만 인류의 멸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문화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 검색하는 것을 소홀히 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폭증되어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도 무의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인공지능도 무의식과 어떻게 접촉시키느냐가 사활의 과제입니다. 김병석 (의대 53)

사회적으로

역후(한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세돌 9단도 덕후이며 다음 세대에 이런 덕후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도 서울대·KAIST·정부 연구기관이 힘을 합치면 알파고를 흉내 내는 인공지능은 만들 것이다. 하지만 알파고를 만들어낸 허서비스나 구글 같은 창조적 인물과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세기의 바둑 대결을 지켜보며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다. 이정동 (모교 산업공학) 교수 (중앙일보 기사발췌)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알파고의 끝내기가 강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강했다. 알파고가 좀 손해보는 바퀴치기를 하고 선수를 택했는데, 정말 놀랐다. 알파고가 선수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니 문제카를로 탐색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수순이 반영된 셈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만으로도 인류의 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문병로 (공대81,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인공지능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이번 화제가 된 알파고와 같은 지금의 AI는 학습시킨 그 한 가지만 가능하지만 생명체의 인텔리전스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학습시킨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때 AI가 인공지능을 앞서게 된다. 아직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며, 이세돌과 허서비스의 싸움이다. 동양의 아날로그 직관과 서양의 디지털 분석력과 싸움이다.

이제 인간의 몸과 같고 인간의 판단력보다 우수한,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진 AI를 지닌 인공생명체-로봇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인간은 기계가 인간처럼 되는 점을 만들면 얼마나 편해질까만 생각했다. 하지만 육체에 의식까지 들어가 추론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되면 '터미네이터' '이글 아이'처럼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역습하는 공상과학영화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인공생명이 각 분야별로 만들어지면 시인, 작곡가, 만화가 등 모든 직종이, 특히 변호사가 많이 잠잠한 상황이 된다. 모든 판례를 종합, 분석해 정확한 승소율을 계산해내는 AI가 등장하게 되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

지난해부터 학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AI였다. 공상과학영화가 아닌 고급 과학전문지인 '와이어드'가 AI를 별점 특집기사로 다뤘다. 이제 AI가 AI를 앞서는 날이 10년 내에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을 통해서 그것을 실감하고 마치 신기술이 나타난 것처럼 이상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일종의 '돌릴 현상'의 한국적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 공상과학영화를 보며 막연하게 농담처럼 해왔던 걱정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의식주, 선거와 정치, 북핵 문제 같은 것에만 관심을 쏟았다. '홀로그래피 공화문'에서 시위도 하는 세상이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홀로그래프의 유령들이 거꾸로 독재를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움직이고 모른다라는 불안과 불길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능을 가진 생명체는 끝없이 변화하는 자기조직을 통해 진화한다. 이것은 물리법칙이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을 결합해 만든 인공생명, 안드로이드는 패턴인식을 통해 의식과 감정까지도 흉내낼 수 있다. 특정 단어를 들으면 슬퍼하거나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식으로 반응을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을 지닐 수는 없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디지로그가 있다. 그들에게는 디지털뿐이다. 전지전능한 터미네이터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확률과 통계의 수학적 기술이다.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E=MC"은 물리법칙이지만, 생명체는 다르다. 공백이가 어떤 경로로 기어갈지는 어떤 통계로도, 빅데이터로도 예측하기 힘들다. 생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 38억년을 살아온 생물의 유전정보가 디지털 정보와 대결해서 물질이 생명체를 지배하는 '기술중세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걱정해야 할 것은 IT·강국, 유전공학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다시 시작하자. 기술발전이 신통한 단계에서 비통한 단계로 넘어왔지만, 민자, 인간의 생명을, 인공지능을 해체나갈 수 있는 것은 디지로그고, 한국인에게는 그 디지로그가 있다. 이영령 (문리대 국문학 52, 교수) (한국일보 기사발췌, 편집)



[미술]

“Fire and Light” (불과 빛)



새로운 화법으로 세계 화단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원미랑(미대 65) 동문의 개인전이 “FIRE & LIGHT”라는 Title로 Burlingame에 있는 The Studio shop Gallery에서 3월 11 -26, 2016 열렸다.

원 동문의 초대야는 다음과 같다. “할 줄 아는 게 작품뿐이라, 작년 8개월 간 San Jose/ Los Gatos에 있는 스탠포드 병원 작품을 끝내자 이어서 11월에 한 달간 다시 Napa와 Sonoma에 있는 세계의 Aere나 화랑에서 제 개인전을 했습니다. 올 초에는 상황에 있는 SF Arthaus라는 화랑에서 그룹전을 끝냈습니다. 일 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이번 전시를 또 준비하자니, 지치기도 했고, 의욕도 많이 떨어진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화실 문을

당분간 닫아걸고, 오래전부터 한번 시도하고 싶었던 Gold leaf 또는 gilding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거라, 책과 동영상과 문헌 등을 통해 공부를 했구요, 혼자서 실수해가며 터득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24금 순금부터 12 캐럿까지의 gold nugget을 기계로 얇게 피고 퍼서 아주 얇은 종이같이 만들어서 gold leaf라고 합니다. 그걸 작품 위에 일종의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이는 것이 과정입니다. 옛날 중세기 성화이나 유럽에 건축물에 금을 입혔던 작업과 같습니다. 저는 현대화에 이 재료와 방법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금종이란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구요, 남들은 노년을 위해 돈



을 모아 순금을 산다는데, 재료가 익숙지 않아서 많이 버리게 되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쓰고 있는 강철망 위에 사용하자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역시 새로운 재료를 만지니 재미도 있었고, 새로운 기법에서 오는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개인전에 소개하는 Alchemy (연금술)이란 시리즈입니다. 몇 년 동안 거대한 화랑이라 이번 전시를 통해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연금술” 새 작품을 비롯해, 원 동문이 해 오던 강철망 torch 작품 등, 모두 45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 오프닝 날에 폭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

해 원 동문의 설명을 경청했다. 어렸을 때, 집 벽지, 밖의 벽같은 데를 온통 낙서, doodling을 해도 야단치지 않았던 부모님 얘기부터, 학교 얘기, 어떻게 쇠철망을 태우게 되었나 (우연히 발견한거죠, 다른 작업 하다가), 작업하는 과정이라든지, 방법 (뭇 그림이나 스케치 없이, 불꽃이 흘러 가는데로, 마치 화선지 위에 먹물로 붓으로 그리듯, 강철망을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려뜨린 채, 불꽃을 움직이며 직접 그리는 방법, 즉 태우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예 금박 작업을 하게 되었다, 등을 설명했다. 원 동문은 미대 수석 입학한 후 총장상을 받고 졸업했다.

*www.mirangwonnee.com

〈글:홍경삼(문리 61) 북가주동창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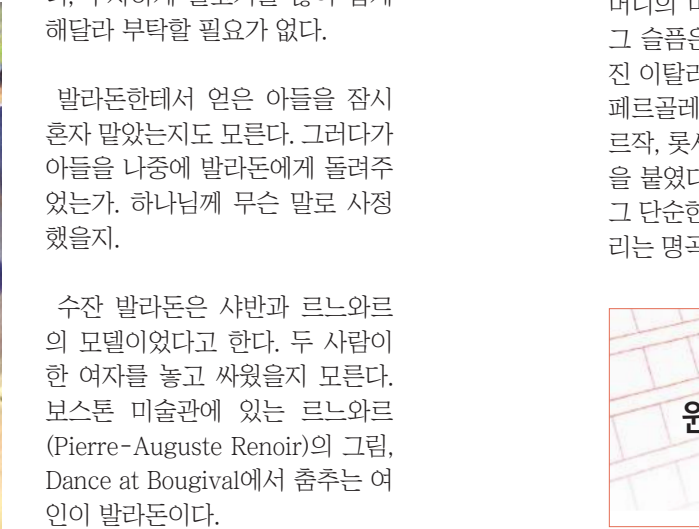
기도하는 태도



최은관 (상대 64)

오르세(Musee d’Orsay) 미술관에 있다. 어느 것이 먼 저인지는 알 수 없다.

긴 설명 없어도, 어부의 기도하는 태도는 감동을 준다.



가난을 피부로 겪었기 때문에, 샤반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듯하다.

샤반은 리옹(Lyon)의 교외에서 태어났는데, 자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광산 전공의 공학도가 되려고 했으나 몸이 아파서 그만두고, 이태리로 여행한 뒤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유진 델라크로아(Eugene Delacroix) 밑에서 그가 병이 들기 전에 잠시 공부했으나, 나중에 토마스 쿠튀르(Thomas Couture) 밑에서 공부했다.

샤반은 모델로 삼았던 수잔 발라돈(Susanne Valadon)과 사랑에 빠졌다. 발라돈은 윌트릴로(Maurice Utrillo)를 낳았는데, 누가 아버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에드가 드가(Edgar Degas)나 르느와르 아버지라는 설도 있으나, 이 두 그림을 보면, 샤반이 아버지였던 듯하다. 윌트릴로는 자라서 도시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다.

첫번째 그림은 가난한 어부가 행복했던 시절에 기도

하는 모습을 그린 듯하다. 젊은 여인은 꽃을 뜯고 있고, 아기는 포대기에 싸여 잠을 자고 있다. 아마도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인 듯하다.

두번째 그림에서 어부는 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배 안에는 어린 아기가 꿀잠 잠을 자고 있다. 자는 아기를 팔뚝에 두고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없고, 아기를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멀리 나가기도 힘들다. 이 그림에는 여자나 아내도 없다. 가난한 어부는 결국 화가 자신의 초상화가 아니었을까? 당시에 화가나 어부나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가난해서 여자가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부의 기도하는 표정에는 누구를 찾는 모습이 없다.

하나님은 말에 응답하지 않고 태도에 응답한다고 한다. 말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몸이 아프다든가 가난이 참기 힘들면 기도가 절로 나오겠지만, 만사가 순조로울 때에도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으니, 구차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 부탁할 필요가 없다.

발라돈한테서 얻은 아들을 잠시 혼자 맡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아들을 나중에 발라돈에게 돌려주었는가. 하나님께 무슨 말로 사정했는지.

수잔 발라돈은 샤반과 르느와르의 모델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한 여자를 놓고 싸웠을지 모른다.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르느와르(Pierre-Auguste Renoir)의 그림, Dance at Bougival에서 춤추는 여인이 발라돈이다.

[음악]

사순절에 듣는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Stabat Mater: 슬픔의 성모



심희진 (음대 90)

며칠 전 운전 중에 듣는 지 오래된 CD가 눈에 띄어 듣게 되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음악에 이게 과연 무슨 곡인지 너무 궁금했다. 분명 바로크 풍인데 누구의 곡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신호에 걸리자마자 CD 표지를 확인해 보았다. 바로 페르골레지(Pergolesi)의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의 첫 곡이었다. 애절하게 흐르는 현악 선율에 따라 나오는 소프라노와 알토의 이중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지 듣는 내 영혼도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Giovanni Battista Pergolesi (1710—1736)은 바하와 헨델과 같이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다. 천재성을 타고 났지만 요절한 탓에 남긴 작품이 많지 않은 탓도 있겠고, 그나마 연주되는 곡들이 주로 성악곡, 그 중에서도 교회 음악인 탓도 있을 것이다. 요절했다는 모짜르트와 슈베르트가 각각 35세와 31세에 생을 마감했지만, 페르골레지는 26세에 죽었으니 요절한 작곡가들 중에서도 너무 짧은 생을 살다 갔다. 그래서인지 그에 관한 사실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그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평민 집안에서 태어나 수도원에서 음악 교육을 받았고 나폴리의 구빈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곧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작곡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오페라 작곡에 능해서 여러 편의 오페라들을 남겼고, 그 중에서도 희가극 La serva padrona (마님이 된 하녀)도 지금까지 오페라사에 그의 이름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를 지는 병약한 아이였고, 가족력이었던 결핵으로 평생 고통받았다. 그의 세 형제들도 모두 결핵으로 어려서 세상을 떠났고, 페르골레지 혼자 살아남아 성년을 넘겼다. 그러니 20세 초반에 찾아온 명성과 성공에도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병이 더 깊어지자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나폴리 근처의 수도원으로 돌아갔고, 이 Stabat Mater를 위촉받아 작곡하였다. 생의 마지막 불꽃을 살라 이 곡을 쓴 것이다.

Stabat Mater는 문자적인 의미는 ‘어머니가 서 있으시다’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모애상’, ‘슬픔의 성모’ 등으로 번역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그린 곡이다. 아무런 예견된 죽음이있더라도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왔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육정은 끊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13세기에 쓰여진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모 찬미가인 ‘Stabat Mater’에 페르골레지 이외에도 조스켈 데 프레부터 하이든, 드보르작, 린스키, 풀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였다. 이 중에서도 페르골레지의 Stabat Mater는 그 단순한 편성과 빼어 사무지는 듯한 슬픔이 마음을 때리는 명곡이다. 이 곡은 거대한 합창도 없고, 소프라노와

원고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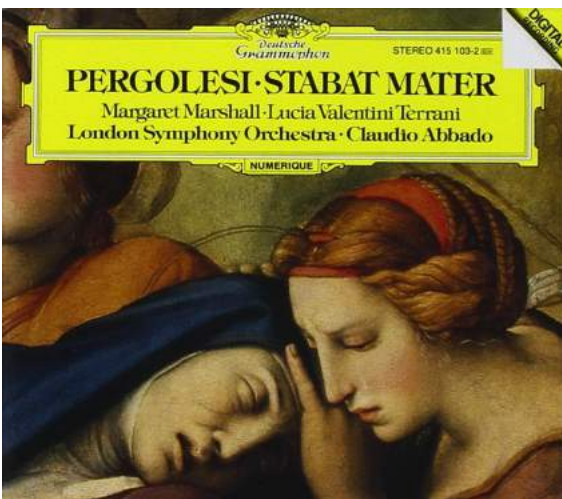
5월은 가정의 달로 **‘나에게 가족이란’** 주제의 글을 보내 주세요. 100단어가 원칙이지만, 좀더 긴사연이라도 좋습니다. 이만생활에서 겪는 부모의 이야기, 자식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등, 그리고 그 사연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편집위원들 투표로 세분에게 25불짜리 상품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창회보가 읽을꺼리가 많아지고 편집이 좋아졌다는 의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단어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 그리고 다른 고화질의 사진들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과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든 사진들도 보내 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으로 찍어서 news@snuua.org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편집위원회〉

사순절에 듣는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Stabat Mater: 슬픔의 성모

알토 단 두 명의 여성 성악가와 현악기들, 그리고 콘티누오 (지속되는 저음을 연주하는 건반악기나 첼로)로 구성되어 있다. 요즈음엔 소프라노와 카운터 테너(두성을 써서 여성의 알토와 메조 소프라노 음역을 소화하는 남성



성악가)가 짝을 이뤄 부르기도 한다. 모두 12곡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의 여섯 곡에서는 아들을 잃은 성모 마리아의 고통을, 후반부의 여섯 곡에서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눴으므로 심판날에 영벌을 면하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명곡답게 현재 30개 이상의 CD와 DVD가 시중에 발매되어 있고, 유명한 성악가들의 음반도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알려진 명반으로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와 런던 심포니의 음반을 들 수 있는데, 그의 낭만적 해석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때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다. 대체로 템포 변화가 많지 않고 진지하고 사색적인 느낌의 이 음반은, 다소 오페라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두 여가수—마가렛 마샬 (Margaret Mar-shall)과 루치아 테라니 (Lucia Valentini Terra-ni)—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필자가 처음 이 음악을 접한 것도 이 음반을 통해서였다.

좀 더 바로크적인 해석을 원한다면 바로크 음악 전문 그룹의 음반을 택해 보는 것도 좋다. 리날도 알레산드리니 (Rinaldo Alessandrini)가 이끄는 Concerto Italiano의 음반은 좀 더 다이내믹한 리듬과 템포로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첫 곡은 다른 음반에 비해 상당히 느린 템포를 취해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곡들도 템포의 변화가 많아서 앞서 소개한 아바도의 연주와는 대조적인 느낌을 준다. 최소한의 악기만을 써서인지 정갈하면서도 격정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고, 알토를 부르는 사라 밉가르도 (Sara Mingardo)도 풍부한 성량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다. 소프라노 젤마 베르타놀리 (Gemma Bertagnoli)의 음성이 좀 메마른 느낌을 주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만약에 두 가수의 목소리의 하나됨을 느끼고 싶다면 제라르 레스느(G rard Lesne)가 이끄는 Il Seminario musicale의 음반도 추천할만 하다. 특이하게도 프랑스의 카운터 테너인 레스느가 소프라노 베로니크 겐스 ( ronique Gens)와 짝을 이뤄 노래와 지휘를 다 맡은 이 음반에서 보여준 두 목소리의 어울림은 참 아름답다. 거의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앞에 소개한 가수들의 해석보다 다소 밋밋할지는 모르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 외에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독일 소프라노 도로테아 뢰슈만 (Dorothea R schmann)과 데이비드 데니엘스 (David Daniels)의 음반이나, 바바라 보니 (Barbara Bonney)와 안드레아스 슐 (Andreas Scholl), 청아한 목소리의 엠마 커크비 (Emma Kirkby)와 제임스 바우먼 (James Bowman)의 음반 등 추천할 음반이 많지만 지면 관계로 줄이기로 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곧 부활절이 온다. Bach의 유명한 마태 수난곡 (St. Matthew Passion)이나 요한 수난곡 (St. John Passion)을 듣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한 곡을 듣자고 두 세 시간을 투자하는 건 쉽지 않다. 이 Stabat Mater는 약 40분 정도면 들을 수 있다. 갈수록 바빠지는 세상이지만, 오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너무나 아름다워서 슬퍼지는 이 선율에 잠시 나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 노래를 통해 토해져 나오는 슬픔과 울음에, 마음도 영혼도 씻기어 깨끗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위원, Temple대학 강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2016 June 27 - July 29

GET AHEAD WITH A SUMMER IN KOREA



Calendar

March 1	Beginning of Application Period
April 4	Deadline for Early Applications & Payment
June 8	Deadline for Applications & Payment
June 27-28	Dormitory Check-in
June 28	Opening Ceremony
June 29	First Day of Classes
July 28	Last Day of Classes & Closing Ceremony
July 29	Dormitory Check-out

Contact us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SNU ISI)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F, C.J International Center(Bldg.152),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015, Korea

Email applyisi@snu.ac.kr
Tel +82-2-880-4449
Website <http://isi.snu.ac.kr>
Facebook <http://www.facebook.com/snuisi>

Courses

East Asian Studies

U.S. and Asia
China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 and Reorientation
Human Rights Issues in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Japan and East Asia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rade Integrations in Asia-Pacific
Entrepreneurship in Asia

Korean Studies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Politics and Society
History of Premodern Korea
Introduction to Korean Politics
Two Koreas: Modern Korean History and Society
Korean Architecture and Urbanism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ulture
Korean Art and Oriental Painting (2 credits, 30 class hours)
Korean Art and Ceramics (2 credits, 30 class hours)
Korean Language (Levels 1-5 / 2credits, 30 class hours)

General Courses

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
Introduction to Macroeconomics
Introduction to Marketing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troduction to Psychology
Financial Management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Biology (lecture only)
Chemistry (lecture only)
Environmental Engineering
Philosophy at Crossroads: Philosophy East and West

[건강]

전이성 유방암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팀 “전이성 유방암 생존기간 크게 늘어”

전이가 발생한 4기 유방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 암병원 문형곤 교수(사진)팀은 1998~2010년에 치료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데이터를 분석했다. 2000년대초 19개월, 2000년대 중반 2년 이상, 2000년대 말 39개월로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향상된 생존률을 보였다.

전이는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 이외 다른 체내장기로 이동해 암이 자라는 현상으로, 통상적으로 전이가 발생한 경우 완치가 불가능한 4기암으

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 547명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 장기생존을 달성한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진단 당시의 병기, 암의 호르몬수용체 여부, 증식성 정도가 중요한 예측인자였다. 재발까지의 기간, 전이병변의 위치, 증상유무 역시 전이 이후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문 교수팀은 이를 기반으로 전이 후 생존예측 모델을 개발, 국립암센

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국내 여러 다기관 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자료에 적용시킨 결과 그 유효성이 검증됐다.

문 교수는 “이 모델링을 통해 장기생존이 가능한 환자 선별이 가능해졌다”며 “유방암치료 수준의 향상 및 신약 보급확대가 가장 생존율 향상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국립암센터 암정보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간하는 국제 암학술지(Annals of Oncology) 온라인에 지난 1월 게재됐다.

문 교수는 2012년 의학계 권위자인 분취의학상(젊은의학자상 임상 부문)을 받았다. 조기유방암 환자에



서 거드랑이 림프절 전이여부를 파악하는 새로운 수술법인 ‘감시림프절 검사법’이 기존의 거드랑이 림프절 절제술과 비교하여 장기적 치료 성적이 뒤지지 않는 우수한 수술법임을 입증한 공로다.

문 교수는 한국인 유방암 환자 4만 5000여명의 생존 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을 2010년 저명한 국제학술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하기도 했다.

입냄새 심한 40대男, 병명이?



잘 먹는 것은 삶에서 손꼽는 낙(樂)이다. 하지만 즐거움만 좇아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현대인에게 흔한 소화기 질환이 위식도역류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비만,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에는 드물었던 위식도역류가 급증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현대인의 ‘아픈 속’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김정남(42·서울 강남구·가명)씨는 갈수록 심해지는 입냄새가 걱정이다. 목이 자주 쉬고 가래가 끈 듯 칼칼해지면서 기침도 심해졌다. 가끔, 오일풀링 등 목에 좋다는 것은 모두 사용해 봤지만 허사였다. 병원을 찾은 김씨의 진단명은 위식도역류 질환.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사진, 지대 85졸)는 “위식도역류 질환은 타는 듯한 속쓰림과 명치 통증 외에도 심한 입냄새, 목이물감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겪는 위식도역류 질환은 음식물은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하며 체내에 흡수된다. 음식물이 처음 닿는 소화기관은 위다. 위는 음식에 있는 세균을 없애고, 펩신과 트립신 등 소화효소를 분비해 단백질을 흡수한다.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고 살균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는 강한 산성(pH 2) 상태를 유지한다. 위는 보호막에 둘러싸여 강한 산성에도 잘 견딘다. 반면에 식도·후두·기관지는 위산에 노출됐을 때 조직이 손상돼 기능을 잃는다. 위액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식도괄약근이다. 식도와 위

의 연결지점에서 음식이 들어갈 때나 트림을 할 때는 열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항상 닫혀 산으로부터 식도를 보호한다.

문제는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괄약근이 충분히 조여지지 않아 위 속의 위산·펩신이 식도 위쪽으로 역류한다. 이를 통틀어 위식도역류 질환이라고 한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식도역류 질환의 일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식도역류 질환 환자는 2008년(199만 명)부터 2012년(337만 명)까지 5년 새 138만 명 증가했다. 유병률은 11.8~17.3% 수준으로,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낮에 과식, 밤에 야식이 위산 역류 주범
위식도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동



위식도역류 질환 증상

가슴쓰림 및 통증
입냄새
만성기침
선 목소리
목이물감

위식도역류 질환 예방법

기름진 음식과 술, 카페인 탄산음료를 자제한다.
과식, 속식, 편식, 결식, 야식 등 식습관을 조절한다.
취침 시 상체를 높게 해 위산 역류를 방지한다.
담배를 끊는다.
체중을 조절한다.

환의 신호일 수 있다. 특히 봄·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이런 증상이 1주일에도 1회 이상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는 게 좋다.

위식도역류 질환은 저절로 낫지 않는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유착이나 바렛식도(식도 점막 조직이 변성돼 나타나는 전암성 병변), 식도암 등 위험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의사회에서는 50세 이상이 5년 이상 위식도역류 질환을 앓는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33rd Annual Medical Convention

- 6월1일(수요일)~5일(일요일), 워싱턴 DC
- The Westin Tysons Corner 호텔 (Tel: 703-893-1340)
- 문의: 한승신 Email: hahns@upstate.edu 315-464-5991(w) 315-247-1626(cp)



ENJOY YOUR SUMMER WITH SNU

[영화]

Anomalisa

Utopia vs Dystopia? 그러면 행복해질까?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뿌리째 뒤집어지는 요즘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왜 그럴까?

‘우르크’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드라마가 보여주는 휴머니즘과 인간애가 脫 헬조선을 외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구원의 소나기같이 후련하게 해주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알파고가 등장했다. 아직은 알파고가 안될거야? 라던 많은 사람들에게 결과는 충격적이다. 인간 이세돌이 통쾌하게 이겼어야 속이 후련할텐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 그야말로 인류의 종말을 보는 것 같은 섬뜩한 마음까지 든다.

‘Anomalisa’라는 영화의 세계가 바로 이런 사이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다.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Customer Service Conference에 강사로 출장을 간 마이클이 ‘리사’라는 한 여자를 만난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아니 사이버 인간)들의 목소리를 Tom Noonan이라는 성우가 해 낸다. 그만큼 획일적이라는 거다. 가면을 쓴 것 같은 얼굴들엔 아무 표정이 없다. 그것도 획일적이다.

영화는 고독, 절망, 허무 등, 직직하고 재미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려 연가하는 꼭두각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왜 그래야 하는지 당위성 따위는 거의 생략한 채 둘은 옷을 벗고 섹스를 하고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한다. 그리고 헤어진다. 그것이 사랑이었는데, 획일화된 세상에서의 유일한 낙인지, 자유를 잃은 인간의 몸부림이었는데, 영화는 말하지 않는다.

1974년에 손 코넬리(007로 유명한 배우)가 주연했던 ‘Zardoz’라는 영화가 있었다. 수백년 후의 미래 사회를 보여준 영화, 그 세상에서 일단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궁극적 과제인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 영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Utopia를 건설한다. “Tabernacle”이라는 지고(Ultimate)의 인공지능에게 그들의 삶을 맡

긴다. 영화는 멸망된 세상, Dystopia에 속한 손 코넬리가 그 Utopia 세계에 잠입해 겪는 이야기다. 그 세계는 오늘날 인간이 지향하는 바로 그 미래의 세계다. 죽음도 극복한 인간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빛으로 바뀌어 거대한 수정알 속에 저장되



고 모든 인간은 자그마한 수정반지를 끼고 있다. 이 반지가 바로 스마트폰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즉시로 내 놓는 ‘다나와’이다. 화면은 허공에 나타나는 홀로그램.. 구글 안경따윈 필요도 없다.

그 세상에서의 인간들은 행복할까?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 알파고가 지배하는 세상, 운전사 없이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자동차, 이런 세상이 바로 눈 앞

에 벌어지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다’ 라고 컴퓨터가 끝없이 우리를 상기시킨다. 필자가 이번에 윈도우 10이 설치된 컵을 구입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끊임없이 내 모든 걸 속속들이 알아야겠다고 아우성이다. 인간

[여행기]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지재원 (사대 68)

줄을 그으며 떨어지는 별뿔별들, 할머니는 그 별들은 사람의 영혼이 떠남을 알리는 별이라고 하셨다.

그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포근한 할머니의 품이 생각나고 괴위 놓았던 모깃불 내음이 생각난다. 그 수 많은 별들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었고 내 머리 위 하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존재였다.

여행을 갈 때마다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원도 산 속에서도, 미국 국립공원 깊은 곳에서도, 바다 한 가운데 크루즈 선상에서도, 아니 히말라야 산 속에서도 어릴 때 보았던 그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은 볼 수 없었다.

가끔은 달이 떠 올라서, 아니면 저 멀리 보이지않는 도시의 불빛 반사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있는 곳의 불빛때문에 내가 원하는 밤하늘의 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끔은 내가 오직 내 마음 속에 환상을 그려놓고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오랜 세월 끝에 나는 드디어 여기 우유

니 소금 사막에 왔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은 보이지 않고 하늘과 흰 소금 사막만이 이어져있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밤에 별구경 가져고 부탁하였다. 밤 9시가 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었다. 우리는 소금 사막을 달릴 수 있는 5인승차를 타고 불빛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뚫고 30여분 이상을 달렸다. 소금 위로 빗물이 찰랑 찰랑 고여있는 곳에 차가 멈춰섰다. 장화를 신고 우리는 조심스레 차에서 내렸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아... 아...’

검은 하늘 한 가운데로 찬란한 은하수가 가득히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은하수!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영어의 Milky Way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이름이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눈물이 솟아나려고 하였다. 한 없이 넓은 하늘에는 땅에 닿도록 찬란한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머리 위를 보아도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별, 별, 별들이었다.

가이드는 준비된 플래시로 십자성을 가르켜주었다. 나는 ‘남쪽나라 십자성’의 노래만 듣고 북쪽의 북극성처럼 한 개의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4개의 별이 십(+)자를 이루고 있는 별자리였다. 우리 동네에서도 확연히 보이는 오리온 성좌도 보였다. 그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크고 등불을 켜듯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붉은별이 보였다. 친구 기숙이가 가져온 셀폰의 Sky Map을 열어서 조사해보았다.

목성이 그렇게 빛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남쪽나라 십자성이 빛나는 나라에서 우리는 가까이 온 목성을 그렇게 깨끗이 보는 행운도 가졌다.



별들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이드가 말했다 ‘발 밑을 보세요’ 어머나! 내 발 아래 물 속에도 별들은 빛나고 있었다. 별들은 하늘에도, 발 아래에도, 그리고 내 마음 속에도 빛나고 있는데...

같이 갔던 교회 친구와 나는 그 감격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해서 ‘죄송해요’라고 사과하고는 우리는 살아가게 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둠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살짝拭었다. 주위는 물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캄캄함이 뒤섞여 플래시 불빛에 비추이는 모습이 괴물스럽고 두려웠지만 밤하늘은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두렵고 어둡더라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였다. 돌아오면서 모든 여행은 잊을찌라도 이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본 이 순간은 절대로 잊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시간]

사상이 아니고 사랑이다

마음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한 지혜의 서



이태상 (문리대 55)

힘든 세상,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가 절실하다. 세상은 발전해서 살기는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고 괴롭다. 세상이 각박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각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한 지혜의 서를 이태상 동문이 내놓았다. 한줄한줄 가슴으로 읽어서 마음에 새기는 글이다. 우리를 구속하는 머리 아픈 사상이 아니라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주는 사랑의 언어다. 괴로움만 주는 사상은 접고 기쁨만 주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 사상의 물락 앞에 답답하게 풀어놓는 작가의 글은 이 험난한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작가가 글속으로 불러온 철학자, 시인, 가수, 매춘부, 정치가, 어린이 등 많은 세계인들의 입을 통해 속 시원하고 거침없이 마음감옥의 답장을 허물어 준다. 어레 인보우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작가는 세계를 유영하며 체득한 삶을 바탕으로 인생의 위안이 되는 따뜻하고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책에 실린 다음의 글을 소개한다.

좋아하는 일만 찾아 해보리라

된장녀-김치녀를 들먹이는 여혐(여성 혐오)이 기승을 부리는 “한국의 저출산, 저성장”에 대한 해법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고 스웨덴의 인구문제 석학 한스 로슬링 교수(카롤린스카 대학교)도 지적했다지만 한국에서도 뽀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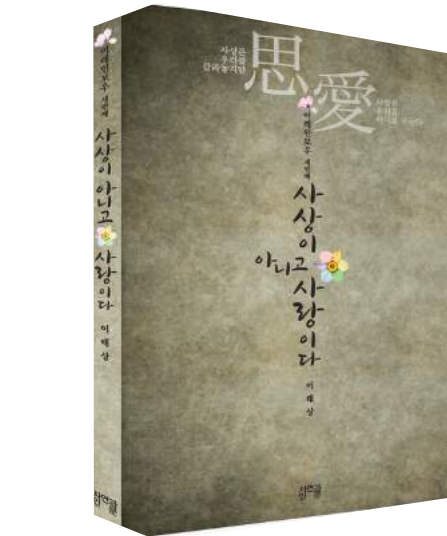
먼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져야 하리라.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 해법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임시직의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에 적응해가는 것이리라.

요즘 미국에선 ‘기그 경제(gig economy)’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기그(gig)’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 즉석에서 수시로 임시 연주자를 구해 공연하게 된 데서 생긴 단어이다. ‘파트타임(part-timer)’, ‘프리랜서(freelancer)’, ‘온디맨드(on demand)’, ‘우버(uber)’ 등과 같은 임시 고용 방식을 말한다.

소위 ‘하드웨어(hardware)’로 일컫는 일자리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로봇, 드론과 3D 프린터 등 기계로 대체되어가는 마당에 고등교육조차도 더 이상 평생 직장을 보장해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표준형 인력을 양산하는 대신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software)’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는 각자의 재능과 자질을 살려 어떤 조직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에 공헌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리라.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날뽕팔이’ 예술인, 과학자, 작가, 철인이 되어 붕이 김선달이나 방랑 김삿갓처럼 또는 황진이 같이 살아보리라.

김안서 자사, 김성태 작곡으로 <꿈길에서>라는 제목으로 가곡으로도 만들어진 황진이의 시 상사몽(相思夢) 꿈을 우리 한번 같이 읊어보자.



상상상견지몽(相思相見只憑夢)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농방환시환방농(農訪歡時歡訪農)

내가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원사요묘야몽(願使遙遙他夜夢)

바라거나, 언제일까 다음날 밤 꿈에는

일시동작로중봉(一時同作路中逢)

같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만나기를

진정 인생길이 꿈길일진대 그리운 님 찾아 만나보듯이 좋아하는 일만 찾아 해보리라.

[새번역]

미국사

20세기 프랑스 대표 지성 앙드레 모루아가 대문호적 통찰로 풀어낸 역사서의 고전 신대륙 발견부터 초강대국 변역에 오르기까지, 500년 역사의 장대만 드라마가 펼쳐진다!

신대륙을 향해 대서양을 건넌 143명이 세운 작은 도시 ‘제임스타운’은 어떻게 거대한 국가 미국으로 성장했는가? 식민지에 불과했던 미국이 패권국 영국을 물리치고 앞서갈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인가? ‘인종의 용광로’로 대표되는 다민족 간의 갈등,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딛고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는가?

프랑스 대문호 앙드레 모루아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안목으로 정치·사회·문화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풀어낸 기념비적 저작. 식민지에 불과했던 하나의 도시가 통합을 이루면서 단숨에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역사가다운 객관적인 관점과 문학가다운 치밀한 재구성으로 흠뻑진진하게 풀어냈다. 인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은 물론, 미국을 이해하고 세계를 통찰하는 길을 열어줄 단 한 권의 책.

◆ 저자소개 : 앙드레 모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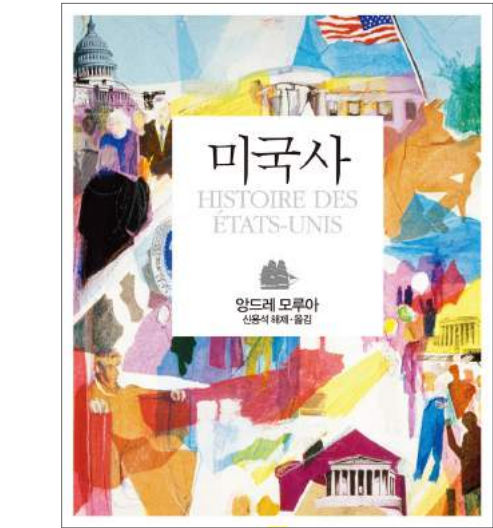
프랑스를 대표하는 평론가이자 전기 작가, 역사가. 본명은 에밀 에르조그 Emile Heraog. 1885년 프랑스 엘베프에서 태어나 루앙에서 공부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대 프랑스의 가장 독창적이고 뛰어난 철학자로 손꼽히는 알랭의 가르침을 받았다. 1차 세계대전 중 연락 장교로서 영국군 측에 배속되어 있었던 그는 전쟁 기간 동안 틈틈

이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브랑블 대령의 침묵》을 출판하며 문단에 등단했다. 《풍토》 등의 소설을 발표하며 특유의 명쾌한 강의로 영국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사》(1937), 《프랑스사》(1947) 《미국사》(1947) 등의 역사서를 발표하며 역사가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역사서의 명저로 손꼽히는 《영국사》를 통해 경(Sir)의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39년 아카데미 프랑스제 회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역사와 문학을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저서와 에세이를 통해서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명료하면서도 유려한 문체 안에 담아냈다. 2차 세계대전 중 잠시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나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창작활동을 계속하다가 1967년 10월 파리에서 사망했다.

◆ 역자소개: 신용석

번역을 맡은 신용석 동문은 모교(문리대 60)와 파리 7대학 석사 과정, 케임브리지대 경제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조 선일보 프랑스 특파원을 거쳐 국제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관훈클럽 총무,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14 인천아시아게임 유치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인천개항 박물관 명예관장을 맡고 있다. 한때 정계에도 몸을 담았으며 광복한 한국사회에 지성과 문화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고 있는 인물이다. 앙드레 모루아의 ‘미국사’를 한국에서 처음 번역한 이는 그의 부친인 신테범 박사. 의사인 신박사가 일본어판을 재번역한 후 아들이 다시 똑 같은 책을 직접 번역해 화제를 모았다.

역자인 신용석 동문은 “역사의 무게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미국인을 보면서 미국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의식이 싹텄다”면서 “앙드레 모루아와 선친의 국적은 다르지만 남다른 지성인으로서의 면모와 의지를 읽는 순간마다 떠올리면서 진지한 자세로 번역작업에 임했다”고 밝혔다.

EXIF: Samsung Galaxy S II, 1/3200 sec, f/2.65 4.03mm, ISO 32



볼리비아 Uyuni 소금사막에서 고교 동창들과 함께. 이재원(사대 68)

“소개팅에도 계급이”... 연애도 각박해진 N포세대

미팅, 소개팅의 계절 봄이다. “그 친구 사람 좋다”며 소개팅을 추천하는 건 옛날 일이다. 요즘은 소개팅조차 철저한 계급제다. 명문대 재학생만 소개해 주는 어플이 인기인가하면 과거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스펙을 요구한다. 취업난으로 결혼, 출산까지 포기한 N포세대 예겐 연애도 더 각박해졌다.

중소 식품회사에 다니는 이모(29)씨는 “소개팅을 하고 싶어도 스펙을 따지는 분위기 때문에 선불리 주선부탁을 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하다못해 취업준비생 카페 소개팅 게시판에도 댓글 많이 달리는 글들은 거의 대기업, 공기업 직장인의 글들이다”라고 말했다.

15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다음카페 취업뽀개기에는 ‘셀프소개팅’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온다. 나이, 직업, 외모 등의 프로필을 적으면 비댓(비밀댓글)이 달리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요즘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개팅 어플엔 아예 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 동문끼리 연결시켜주는 소개팅 어플 ‘스누매치’의 경우 가입 시 서울대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고, 내부 구성원끼리 소개팅을 받는 시스템이다. 타대생 가입도 가능하지만 외부 매칭 기능을 허용해야 추천된다. 일정 수준의 프로필을 입력하고 서울대생임을 인증하면 조건에 맞는 매칭 상대로부터 하루 2~3건 정도의 대시가 꾸준히 들어온다.

또 다른 소개팅 어플 ‘스카이피플’은 남성에게 일정 조건을 요구한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소위 명문대 출신 재학·졸업생만 가입이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전문직,인문사 종사자 등으로 조건을 제한한다. 인증절차는 학교나 직장 이메일로 인증 번호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SKY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과 유학파들만 참석하는 프라이빗 파티 역시 성행중이다. ‘하이라클래스의 멋진분들이 초대 및 참가합니다’라고 광고하는 이 파티에 참석하려면 출신학교, 직장명 등이 적힌 참가신청서를 내야한다. 참가 예약자 명단을 보면 명문대나 의대 출신들이 다수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조모(26)씨는 “사실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소개팅에도 조건을 미리 따지고 만나면 시간 낭비 할 필요 없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펙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소개팅 어플도 이런 심리를 반영한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박모(27)씨는 “얼마 전 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팅 부탁을 했더니 ‘너 취업하면 바로 해줄게. 나도 뭐 할 말이 있어야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연애에서까지 점점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1순위가 되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참가 명복을 빕니다

채희경(법대 59) 동문 : 지난 3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故 채희경 동문(법대 59)께서 7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故 채희경 동문은 2014년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동문들께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고,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장녀 Esther Chae : (323)842-2423, 장남 Brian Chae : (323)206-1104

동형근(의대 57졸) 동문 : 지난 3월 25일 故 동형근 동문(의대 57졸)께서 8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故 동형근 동문은 뉴욕지구 한인개업의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유가족: 장남 동원봉, 장녀 동길수, 차녀 동문경
연락처: 장재혁 917-922-9491

독자의 광장

4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aa.org

3월 동창회 회보에 실린 ‘서울대병’이라는 짧은 기사는 나를 몹시 슬프게 만든다. 강박증이라는 분석은 족히 한국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40여년 전에 한국을 떠난 나에게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 한국의 상황이라고 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서울대생이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모두가 선포하는 대상이라고 들었

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항상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가 머리가 되거나 눈이 되거나 할 수 없다. 그것은 조물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은 발이나 다리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손이 발을 보고 냄새가 나니 없어져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안에서 조물주의 계획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의사가 되었고 대학교수보다는 조그만 시골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다. 나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무엇이 더 상위(?)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중요하니까. 서울대생이 무엇이 수치스러운가? 이것은 아마도 한국사회의 비정상적 사고방식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갑질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들었다. 참

나쁜 사회 병폐라고 생각했다. 한 학교 학생이 모두 일등일 수 없고, 모든 지체가 눈일 수 없다. 그것을 불평등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다. 다른 직책을 맡고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에게 주어진 서울대인으로써의 임무를 찾아 열심히 추구한다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주평(의대 62)>

상식적인 영어 발음 법칙

연말 연초에 큰 조카딸의 하버드 대학 합격을 축하하러 롱 아일랜드 형님댁에 다녀 왔다.

그런데, 마침 조카네 집에 한국 신문이 배달되어 반갑게 기사들을 읽다가 ‘낫소’ 카운티를 보고 아연 실색했다. ‘낫소’ 카운티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논란 것이 아니라, Nassau(County) <뉴욕 시의 퀸즈지역 옆에 접경한 롱 아일랜드의 서부지역>을 ‘낫소’로 표기한 것에 놀랐다.

저는 어떻게 교민들의 대표적인 대변자가 40년이 넘게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고장이름을 제멋대로 표기해 왔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큰 실수가 몇십년을 반복해왔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우리 한국인들이 학교 다닐 때 영어 발음 법을 잘 배우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다고 이해하고 이의 시정을 신문 사측에 요구하려 했으나, 마침 연휴중이라 전화를 못하고 LA로 돌아오고 말았다.

저는 어떻게 교민들의 대표적인 대변자가 40년이 넘게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고장이름을 제멋대로 표기해 왔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큰 실수가 몇십년을 반복해왔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우리 한국인들이 학교 다닐 때 영어 발음 법을 잘 배우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다고 이해하고 이의 시정을 신문 사측에 요구하려 했으나, 마침 연휴중이라 전화를 못하고 LA로 돌아오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well-being을 웰빙으로 발음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별관심 없는 조국에 계시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든지 필자가 상관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특히 필자가 졸업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에서조차 웰빙으로 표기한 것을 보고 우리 동문들만이라고 올바른 발음을 하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 관한 아주 쉬운 법칙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A. 단모음인 경우 끝 글자에 e가 붙으면, 그 모음을 영자 그대로 발음한다. (두 음절 이상인 경우 뒤에 나오는 모음에도 적용됨: 예 Compute, Commute)

well-being을 굳이 우리 글로 표기해야 한다면 “웰 비잉”으로 발음해야 옳다고 하겠다.

이 글을 쓰기 앞서 www.dictionary.com에 들어 가서 well-being을 적어 넣은 다음 스피커 아이콘을 누르니, 분명히 “웰 비 잉”, 3음절로 들렸다. 저는 다행히도 전공 과목이었기 때문에, 영어 발음학을 배워서 Well-Being이 발음학상 well-be-ing의 3음절로 발음하도록 된다고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항상 그렇게 발음해왔으나, 한국에서는 be + ing을 “비-잉”의 두 음절로 발음해야 하는 것을 급해서 그러는지 절악이 좋아서 그러는지, 단음절로 발음하여 “빙”으로 발음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발음을 잘 모르거나 자신이 없으면 인터넷 사전에서 발음을 들어보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즉 모르거나 자신이 없어서 그저 그냥 넘어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못 발음하는 몇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초적인 영어 발음 법칙을 소개해 드리 고저 한다. 즉,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두 가지 법칙을 먼저 설명드리다.

A. 단모음인 경우 끝 글자에 e가 붙으면, 그 모음을 영자 그대로 발음한다. (두 음절 이상인 경우 뒤에 나오는 모음에도 적용됨: 예 Compute, Commute)

A(에이) + E: CAKE LANE FAME
E(이 --) + E: COMPETE PETE
I(아이) + E: NICE LIKE PRICE STRIKE
O(오우) + E: HOPE COKE STROKE
U(유 --) + E: MULE MUTE COM-
PUTE COMMUTE

B.자음이 둘이 겹쳐도 단자음으로 발음한다.

Summer	서머 (X 섬머)
Summit	서밋 (X 섬밋)
Gemma	제머 (X 젤머)
Emma	에머 (X 엠머)
Anna	아너 (X 안나)
Dinner	디너
Skipper	스키퍼
Manner	매너
Hitler	히터 (X 히터)
Hammer	해머 (X 햄머)
Nassau	내소우 (X 낫소(카운티: long-Island에 있는)가 아니라)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고, 이 참에 고유명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못 발음하는 것 하나를 바로 잡고저한다. 그것은 우리가 루즈벨트라 부르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ROOSEVELT의 옳은 발음은 로즈벨트이다. 그분은 네덜란드 계통으로 00는 장모음 오가 맞다(영국식 우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플러싱으로 가는 7트레인을 타고 가면서 배운 것이다. 앞서 소개한 www.dictionary.com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적어 넣고 발음을 들어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환(문리대 60), 하버드 남가주 한인동창회장>

편집위원회 註: 위 두분의 글에 대한 편집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드립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것, 나아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기하는 것은 두 언어 간의 자음과 모음의 차이, 외래어 표기법, 표기법의 전통 등 여러가지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표기법이라면, 두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영어의 발음에 가장 가깝게 한국어로 표기해야겠지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모든 언어(특히 발음과 철차)의 특성으로 인해 “가장 이상적인” 표기법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영어의 발음이라고 할 때 어떤 발음을 기준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

다. 미국식발음인가 아니면 영국식발음인가, 미국식이라면 동부발음인가 아니면 서부발음인가, 미국동부발음이라면 북쪽의 발음인가 아니면 남쪽의 발음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쓰는 한국말이 표준말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의 표준발음이라는 발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라는 두 개의 다른 언어의 음운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체계를 찾아내기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두 분이 예를 든 음절만 보더라도 영어의 strike는 영어에서는 한음절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스트라이크”로 5개의 음절로 표기됩니다. “Well-being”을

“웰비잉”으로 발음하는 건 좋지만 표기하는 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됩니다. ‘r’나 ‘v’ 발음도,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됩니다. ‘R’과 ‘L’도 마찬가지로요.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는 미국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며 살아야겠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한국어 표기법만을 보고 한국식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웰빙”을 “웰비잉”으로 표기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낯설어할 것입니다.

가령 일본에서 Well-being을 웰빙이라

고 표기하고, 중국에서 월펑이라고 표기한다면 그 나라들의 차용어표기법에 따른 표기일 뿐,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두 동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어 한국어 표기법을 영어원음에 현재보다는 더 가깝도록 개선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시작은 개별적인 단어들에서의 불일치 사례집보다는 영어와 한국어의 음운체계, 영어의 한국어 표기법 체계 전체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 웹사이트의 외래어 표기법을 참조하십시오. www.korean.go.kr

서울대 미주동창회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선희(공)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 심회진(음) 사업국장 | 한중희(공)
조직국장 | 백옥자(음) 섭외국장 | 박형준(공)
재무국장 |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사무장 | 이제니
(Webmaster)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주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회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
정태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차임경(가정)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익(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승보현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인(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 이원섭(상) · 강창석(의)

감사 :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Feb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민준기(공대 5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lnee@verizon.net	Jul-Jun
	차기회장	홍지복(간호 70)	401.782.8000	hongjeebock@gmail.com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OR/ID	회장	백태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오하리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W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ul-Jun
	차기회장	임한민(공대 84)	425.444.3899	mmsstf@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의대 53)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xyy23yo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항(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ul-Jun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i@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jjcd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서울대 동문 10% 할인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예쁠 때 가고 싶은 사람
운명보다 노력을 믿는 사람
민남에 더 신중한 사람
아직 내 사람을 못 만난 사람

결혼정보회사
커피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결혼해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업계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CCM 인증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착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COTTMAN

Animal Hospital

Business hours:

Monday:

10:00 AM - 12:00 PM, 4:00 PM - 7:00 PM

Tuesday - Friday:

9:00 AM - 2:00 PM, 3:00 PM - 7:00 PM

Saturday:

10:00 AM - 2:00 PM

Sunday:

Closed

215-745-9030

Fax: 215-745-3055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주거목 (수의 68)

Keep Your Pets the

Happiest and Healthiest

With Our Veterinary Services

Pet Treatment

Surgical Services

Pet Dentistry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

SINCE 1988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선도해 온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고의 명성과 전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입니다. 세계 의료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탁월한 연구와 진료성과의 업적을 성취하였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는 국내외 외국인 환자 및 교포들에게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의 직원들은 각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패키지는 물론,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국내 최고의 권위있는 저희 병원 전문가 교수들에게 신속한 의뢰를 통하여 모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번역 및 통역 서비스는 물론, 각국의 교포들에게 각종 건강보험관계의 서류작업 및 진료예약, 교통편, 숙박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상 모든 이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중행 (의대63, 센터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Email: ihsi@snuhb.org
Tel: +82-31-787-2034
www.snuhb.org

협약된 사보험: Signa (International), Metlife, Tricare, HTH, FSBP, BCBS, GAP, International SOS, United Healthcare, AA+ International, Daman, etc.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Welcome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he nation's premier teaching hospital, where high-quality, discovery-driven care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come together to serve Greater Korea and beyond.

詩: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뺏으시고
백 수잉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기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땀 뿜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라이는 핀을 슬쩍 노력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꽂힌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밭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 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닮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뚜~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cgolfcenter.com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GRAND CENT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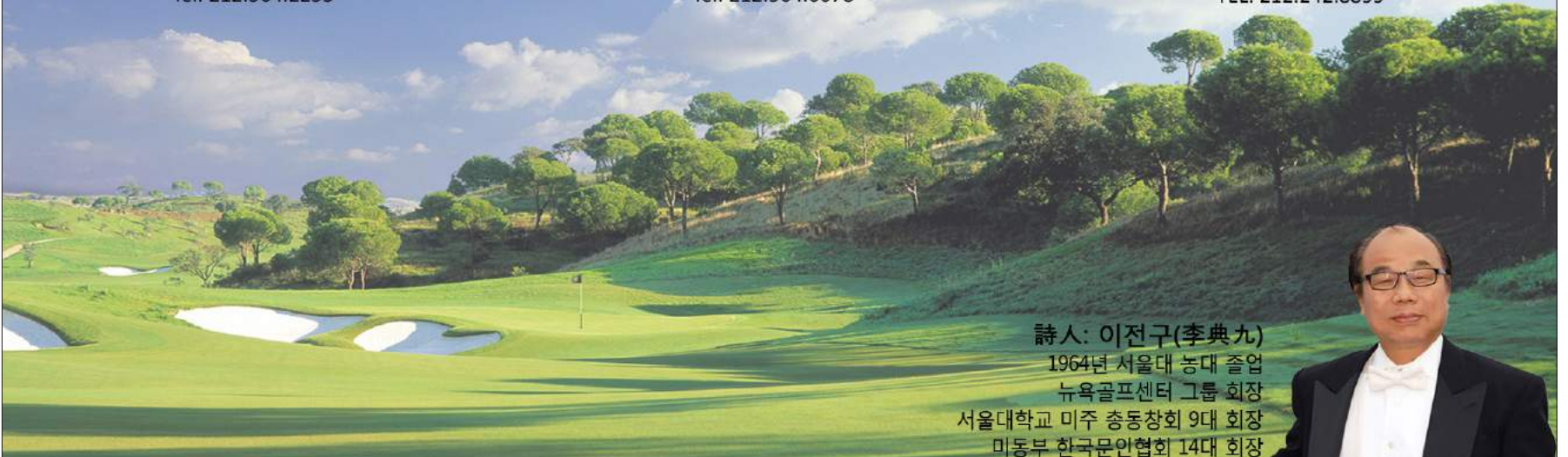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